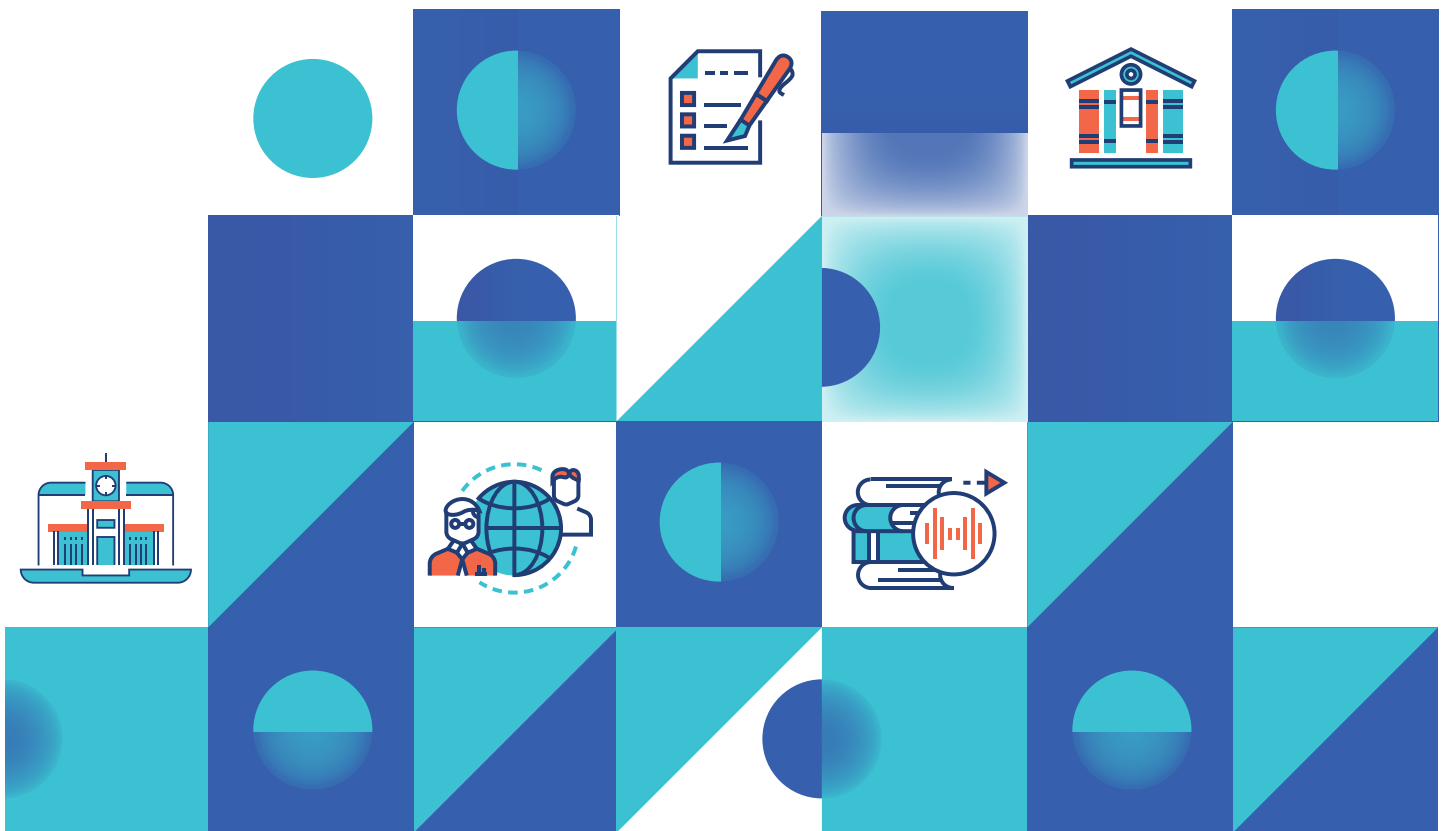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24. 5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함

1		위원장	김영현
2		부위원장	최원석
3		위원	김현미
4		위원	김현옥
5		위원	김효숙
6		위원	박란희
7		위원	안신일
8		위원	유인호
9		위원	이현정
10		위원	임채성

||| 목 차 |||

I.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
II. 특별위원회 구성	5
1. 구성 목적	7
2. 구성 경위	7
3. 구성 현황	8
III. 활동 내용 및 성과	9
1. 활동 내용	11
2. 운영 실적	127
IV. 언론 보도자료	131
1. 세종시의회 보도자료	133
2. 주요 언론 보도 스크랩	153



I.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김 영 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활동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대학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방문,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위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과 함께 그동안 활발히
논의했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성과를 담아 보았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대학캠퍼스를 기반으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대학유치에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이현정, 임채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청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대 학 캠퍼 스 유 치 를 위 한 특 별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영 현



Ⅱ.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 목적

2. 구성 경위

3. 구성 현황

1

구성 목적

- 세종시는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였고, '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음
- 하지만 인접한 복합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을 위한 용역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2030년 행정수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구성 경위

- 2023년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김영현 의원, 최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김현옥 의원, 김효숙 의원, 박란희 의원, 안신일 의원, 유인호 의원, 이현정 의원, 임채성 의원이 선임됨

3

구성 현황

□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 원 장 : 김영현 의원
- 부위원장 : 최원석 의원
- 위 원 : 김현미 의원, 김현옥 의원, 김효숙 의원
박란희 의원, 안신일 의원, 유인호 의원
이현정 의원, 임채성 의원
- 보좌 : 교육안전전문위원

□ 활동기간

- 2023. 2. 10. ~ 2024. 6. 30.

□ 활동방향

- 공동캠퍼스 조성 활성화
- 산·학·연 협력 지원
- 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발굴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Ⅲ. 활동 내용 및 성과

① 활동 내용

② 운영 실적

1 활동 내용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요약

연 번	일 자	장 소	주 요 안 건(내 용)	비 고
1	'23.03.09. (목)	504호 회의실 (1차 회의)	○ 위원장(김영현), 부위원장(최원석) 선임	
2	'23.04.26. (수)	504호 회의실 (2차 회의)	○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3	'23.09.07. (목)	504호 회의실 (3차 회의)	○ 공동캠퍼스 유치 현황 및 공동·단독 캠퍼스 유치 구상계획 보고·청취	
4	'23.11.14. (화)	본회의장 (5분발언)	○ 제86회 정례회 5분발언 -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위원장 (김영현)
5	'24.01.24. (수)	대회의실 (토론회)	○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6	'24.02.02. (금)	4-2生 공캠부지 (현장 방문)	○ 공동캠퍼스 부지조성 및 공사 추진 현황 확인·점검	LH, 건설사
7	'24.03.06. (수)	504호 회의실 (4차 회의)	○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청취	
8	'24.04.17. (수)	대회의실 (간담회)	○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행복청, LH, 공캠법인
9	'24.05.09. (목)	504호 회의실 (5차 회의)	○ 「대학유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1

제1차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2023. 3. 9.(목) 14:00

○ (장 소) 의회 5층 회의실(504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선임 위원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기간 : ~'24. 6. 30.)

소속 상임위 (10명)	성 명
행정복지위원회 (4명)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3명)	김영현(대표발의), 박란희, 이현정
교육안전위원회 (3명)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 (내 용)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2차 회의 일정 협의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의	전문위원
14:05~14:25 20'	○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1차 회의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25~14:30 5'	○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위원장 마무리 말씀 및 산회	위원장

□ 회의 결과

직 위	성 명	비 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	

□ 향후 계획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채택

- 대학캠퍼스 유치 관련 추진상황 보고·청취(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

< 주요 사진 >



▲ 제1차 회의 진행



▲ 위원 단체 사진

2

제2차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26.(수) 14:00
- (장 소) 의회 5층 회의실(504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9명) 및 시청 관계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 (안 건)

- ① 시(市) 집행부,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②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의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05~15:00	55'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위 제2차 회의	
	40'	-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15'	-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부위원장
15:00~15:05	5'	○ 산회 및 기념촬영 등	

□ 회의 결과

안 건	결 과
○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원 안 가 결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 주요 내용

- 분양형 공동캠퍼스 잔여 필지의 위치, 공간, 면적 등이 향후 추가적으로 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고려 필요
- 대학문화거리 관련 세부 추진 계획 마련 및 인근 주민과의 상생, 소통 요청
- 세종시 내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 대학유치 관련 세종시청 조직의 필요 인력 증원 등 적극적 검토 당부
- 행·재정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기 이전 단계부터 유관기관(행복청, LH 등)과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필요
- 공동캠퍼스 내 기숙사가 '24년 8월 준공될 예정으로 '24년 3월 개교 학교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요청
- 국제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연계 등 외국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회의 사진 >



1 공동캠퍼스 조성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 (위치·기간) 4-2생활권 대학부지 약 60만㎡(18만평) / '19~'24년
- (학생정원) 총 정원 3~4천명(임대형 1~2천명 / 분양형 2천명)
- (조성방안) 대학부지 내 교육·연구시설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지원 시설(기숙사·도서관·식당 등)은 **공동으로 활용**
- (개발방식)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LH 직접 개발(2천억원)
* LH 건물건립·기부, 운영법인이 임대 / ** LH 부지조성·분양, 입주대학 교사(강의동) 건립

□ 추진경과

- (임대형 캠퍼스) '24년 개교 목표로 '22.7월 건축공사 착공, 현재 개별 대학의 강의동과 공동시설에 대한 기초공사 진행 중
- (분양형 캠퍼스) 10필지(16만㎡) 중 '21.2월 1차 분양(충남대·공주대 4필지), '23.2월 2차 분양(고려대 2필지) 완료
- (기숙사 건립) LH에서 부지 무상제공,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출자한 SPC에서 건립(총 326실, 500명 / 지하1층~지상8층 / '23.4월~'24년)

□ 향후계획

- (임대형 캠퍼스) 절대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개교
* ('24.3월) 한밭대(AI/ICT 대학·대학원) / ('24.9월) 서울대(행정·정책대학원), KDI(행정·정책대학원), 충남대(의대·대학원), 충북대(수의대·대학원)
- (분양형 캠퍼스) 1차 입주대학 '24년 착공, 2차 입주대학 '26년 착공
⇒ 잔여필지는 IT·BT·ET 등 첨단분야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추가 유치
- (운영법인 설립) 공동캠퍼스 부대시설관리, 입주기관 유치, 입주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23.12월)
* 운영법인 설립추진단 : 행복청(단장 : 도시국장), 시(청년정책담당관), LH, 용역진

참고 1 공동캠퍼스 위치도 및 추진경과

□ 공동캠퍼스(4-2생활권) 위치도 ※ 공동캠퍼스(조성중) + 복합캠퍼스(개발 예정)



구분	공동캠퍼스	복합캠퍼스(주거+교육+연구)
면적	60만㎡(18만평)	85.6만㎡(26만평)

□ 그간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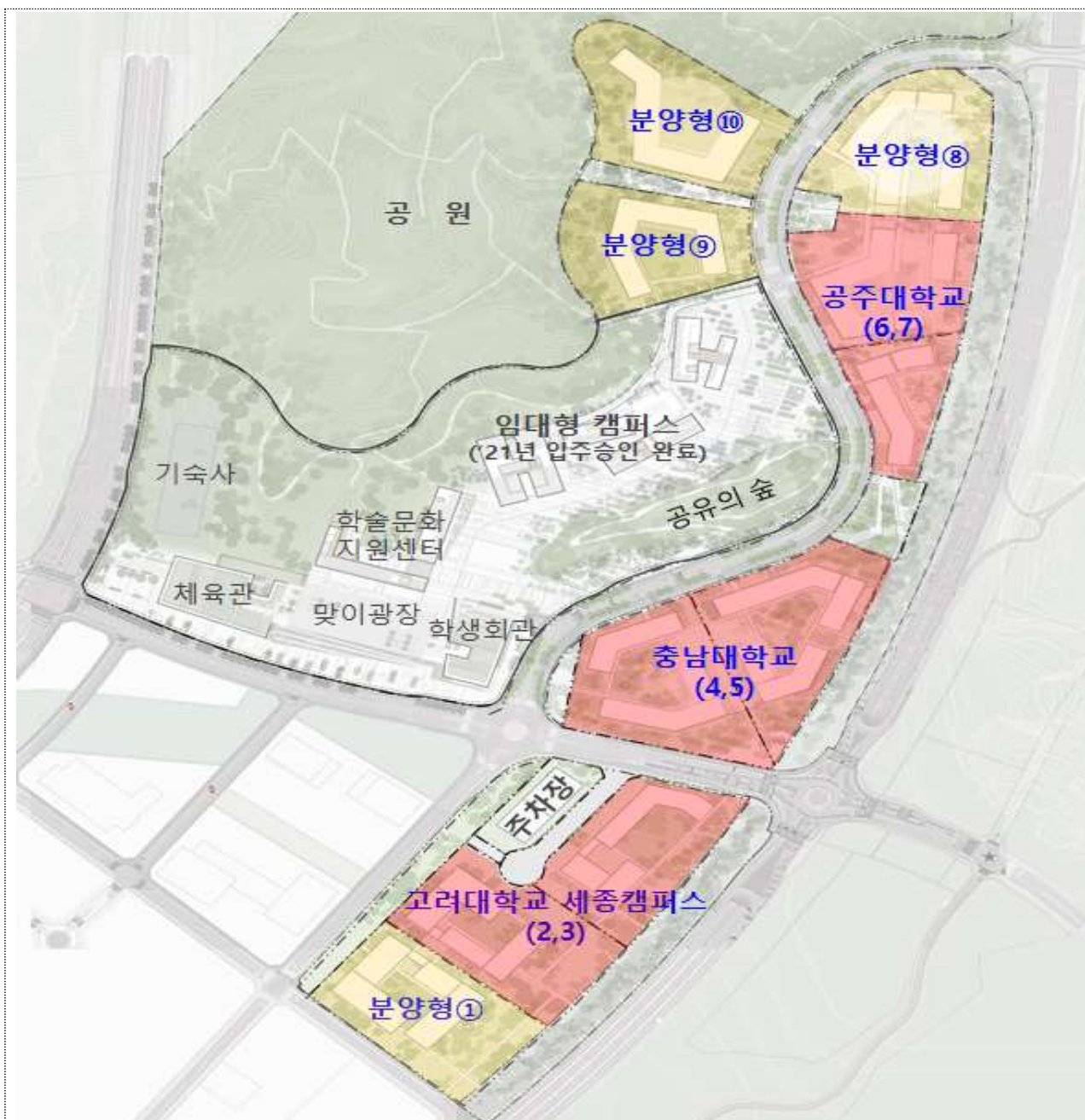
- '17.10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
- '18.5월,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 '18.6.~'19.5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수립(추진위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획재정부, '19.3)
- '19.9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교육부 고시)」 제정
- '19.10월,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 훈령)」 제정
- '20.9월, 공동캠퍼스에 대한 입주대학 1차 모집 공고
- '21.2월, 행복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입주대학 선정·승인
※ 임대형 :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KDI, 한밭대 / 분양형 : 공주대, 충남대
- '21.5월, 임대형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착공
- '22.7월, 임대형캠퍼스 건축공사 착공
- '22.9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2차 모집 공고
- '23.2월, 행복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 입주대학(고려대) 선정·승인

참고 2 공동캠퍼스(임대형) 입주승인 대학 현황



구분	학교	계열	정원	개교시기
5개 대학			1,058명	
전용시설	서울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138명	'24.9월
	KDI국제정책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170명	'24.9월
	충남대학교	의대·대학원	400명	'24.8월
	충북대학교	수의대·대학원	150명	'24.8월
	한밭대학교	AI/ICT 대학·대학원	200명	'24.3월
공용시설	학생회관, 체육관, 맞이광장, 지하주차장			'24.3월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기숙사			'24.8월

참고 3 공동캠퍼스(분양형) 입주승인 대학 현황



명칭	위치	계열	정원	착공(예정)
3개 대학			2,189명	
공주대학교	⑥,⑦ 필지	AI/ICT 대학·대학원	599명	'24.2월
충남대학교	④,⑤ 필지	AI/ICT 대학·대학원	800명	'24.2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②,③ 필지	행정전문대학원, AI/ICT 관련 대학	790명	'26.2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선순환(인재개발 ↔ 연구 ↔ 취업·창업 ↔ 혁신기업 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세종시의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
- (위치·기간) 4·2생활권 대학부지 85만㎡(26만평) / '26년부터 개발
- (조성방안) 대학부지 인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연구·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 (개발방식) 개발이익을 대학·기업 부지조성에 재투자하는 복합개발

□ 추진경과

- (기본용역) '신개념 캠퍼스타운 기본구상' 용역 완료('21.12월, LH)
* 주택공급을 포함하여 주거·교육·연구·상업 기능 등을 포괄하는 '복합개발' 방안 마련
- (공약반영)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복합개발 + 창업기능 포함)
* 세종지역 7대 공약 중 6번 공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 (실행용역) '사업체계 구축 및 민간사업자 공모' 용역 착수('22.8월, LH)
* (기간) '22.8. ~ '25.2. / (금액) 23.5억원 / (내용) 공약 검토, 사업지침서 작성 등

< 사업체계 구축 용역 진행상황 >

- ▶ (용역 착수보고회, '22.10월) '공급자 중심'의 개발 지양, 대학·기업 수요조사 및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한 '수요 맞춤형' 개발 추진
- ▶ (복합캠퍼스 기능유치협의회, '22.11월,12월) 대학·기업 수요조사 결과, 계약학과(기업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수행) 형태의 특수목적학과, 실험실습과정 등이 현실적인 대안

□ 향후계획

- (개발방향 도출) 앵커기능(대학·기업)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사업모델 도출 및 개발계획 수립(행복청·市·LH) : ~ '23년
- (사업자 선정) 복합개발 추진 주관사(기업·대학 컨소시엄 등) 공모 : ~ '24년
- (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부지조성 설계·공사 착공 등 : ~ '26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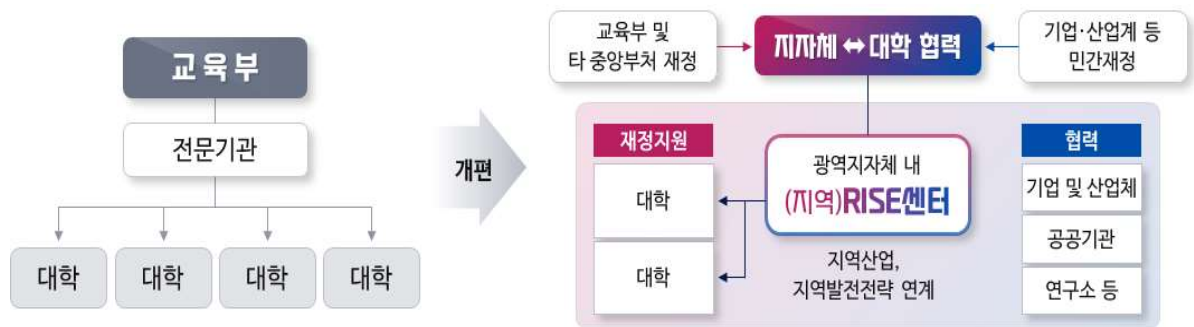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RISE 개요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개념)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협력체계
- (재정)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예산(약 5천억원) 통합 운영 및 단계적 확대
 - *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LINC3.0(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HiVE(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등

Ⅰ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Ⅰ



- (시도 역할)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으로 대학 특성화 및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 ①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계획('25~'29년) 수립, ②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③ 지역 RISE센터 지정·운영
 - * 시·도 : 대학지원사업 기획 → RISE센터 : 사업·성과관리 → 대학 : 사업 집행
- (추진일정) '23년 시범지역(7개 시도) 운영 → '25년 전 지역 확대
 - * 시범지역(7개 시도)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 적극적 재정투자 (경북 1.5조원, 대구 2,966억원), 전담조직 확보(경남 23명, 부산 28명) 등 선정

□ 향후계획 : 대학지원 역량확보 및 RISE 체계 구축 추진

- 지역고등교육협의회(市·대학총장·산업계) 구성·운영('23.4월~)
 -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 RISE 협력체계,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지산학 협력사업 등 논의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용역 추진('23.7월, 추정)
- 전담인력(대학지원 기획·총괄 기능) 확보('23.7월 조직개편시)
- 지역 주도 재정지원을 위한 RISE 센터 지정·운영('24년)
 - * 세종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산학협력 기능 수행조직 증설

□ 대학관련 협의체 운영

1.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 ※ '22.3월 구성, 2회 개최

- 구성 : 행정부시장, 시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시민, 전문가 등 13명
- 역할 : 대학유치 관련정책, 대학유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자문

2.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행복청) ※ '20.7월 구성, 11회 개최

- 구성 : 행복청(도시계획국장),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시(기획조정실장)
- 역할 : 공동캠퍼스(분양형·임대형) 입주대학 심사 등

3.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추진단(행복청) ※ '23.3월 구성, 1차 회의(4.7)

- 구성 : 행복청(도시계획국장), 시(청년정책담당관), LH, 용역진
- 역할 :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 절차 및 관리방안 논의

4. 지역고등교육협의회 ※ '23.4월 구성 예정

- 구성 : 시, 대학 총장(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포함), 산업계 대표 등
- 역할 : 지역혁신중심 지자체-대학 협력체계(RISE) 및 지산학 협력사업 논의

□ 조직 증원 [안]

- (증원방향) 대학 유치 업무 뿐만아니라 지역대학의 육성과 산학협력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증원 필요

현 행	
담당인력	담 당 업 무
1 담당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 지원 ▶ 복합캠퍼스 조성 지원 ▶ 대학 유치·이전 등 현안 대응 ▶ 대학 관련 협의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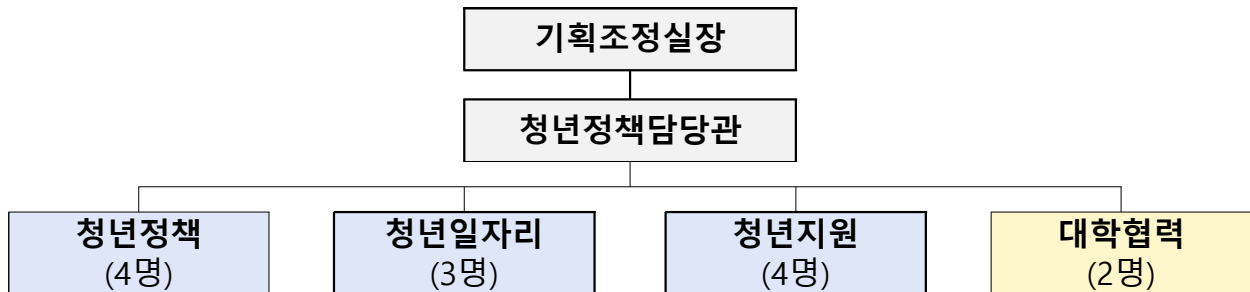
⇒

증 원 (안)	
필요인력	담 당 업 무
1 담당 (실무인력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 지원 ▶ 복합캠퍼스 조성 지원 ▶ 대학 유치·이전 등 현안 대응 ▶ 대학 관련 협의체 운영 ▶ 지역대학 육성 업무(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중심 지자체-대학협력체계(RISE) 구축,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지역 RISE센터 지정·운영, 글로벌대학 사업 등 ▶ 지산학 협력 업무(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LINC3.0(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HiVE(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등

- (추진일정) 조직개편안 입법예고(4월), 조례규칙심의회(5월), 의회 조례개정안 심사(6월), 조례안 공포(7월)

참고 4 대학업무 조직·인력 현황

1 조 직



2 인 력

구 분	합 계	5급	6급 이하
계	13	4	9
청 년 정 책	4	1	3
청 년 일 자 리	3	1	2
청 년 지 원	4	1	3
대 학 협 력	2	1	1

3 예 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대학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6,600	6,200	-	- 대학관련 협의체 참석수당 -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 1회 추경예산 요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원

4 소관 자치법규

연번	자치법규명	비 고
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2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I 특별위원회 개요

1. (목 적)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대학캠퍼스의 조속한 조성과 지속적 지원을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3. (활동기간) 2023. 2. 10.(위원 선임일) ~ 2024. 6. 30.
4. (위 원) 의원 10인
 - 김영현^{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이현정, 임채성

《 그간의 추진 경과 》

- (2020. 3. 27. ~ 2022. 6. 30.) 제3대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
- (2023. 2. 10.) 제4대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대표발의 김영현 의원 외 10명)
- (2023. 2. 10.)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
- (2023. 3. 9.) 제1차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최

II 특별위원회 활동 배경

1. 대학캠퍼스 유치 필요성 증대

- 가. '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증가 대비 고등교육기관의 부족
- 나. 지역 인적자원 확보와 우수인재 유출 방지 필요
- 다. 대학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 마련

2. 제3대 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가. 제3대 의회 특위 위원(위원장 상병헌 등) 총 7명이 약 2년 3개월 동안('20.3.27. ~ '22.6.30.) 대학캠퍼스 유치 적극 추진
- 나. 회의 개최 9회, 현장활동 1회, 토론회 1회, 간담회 2회 등 활동
- 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7.15.)

3. 공동캠퍼스 조성 및 입주 추진

- 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에 근거, 다수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고 입주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공동 캠퍼스
- 나. 현재 7개 대학(3,247명)의 입주가 승인되었고, 임대형 입주대학(5개) '24. 3월부터 개교 시작하여 '24. 9월까지 모두 개교 예정

<공동캠퍼스 입주예정 현황>

구분	임대형					분양형		
	서울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한밭대	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계열	행정·정책대학원	수의대·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의대·대학원	AI/ICT 등 대학대학원	AI/ICT 등 대학대학원	AI/ICT 등 대학대학원	AI/ICT 대학 행정전문대학원
정원	138명	150명	170명	400명	200명	800명	599명	790명

4. 효율적 복합캠퍼스 조성 추진 필요

- 가. 주거, 대학, 창업, 연구, 문화 등이 결집된 복합캠퍼스는 중장기 사업(‘23.~’30.)으로 행복청·시청·LH 등 유관기관 협업이 절대적임
- 나. 현재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체계 검토를 위한 용역 진행단계(LH, ‘22.8.~’25.2)에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캠퍼스 조성 성과 필요

Ⅲ 활동 방향

1. 공동캠퍼스 조성 활성화

- 가. 분양형 공동캠퍼스 잔여 4필지에 입주대학을 모집할 예정으로 우수 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입주승인 대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원활한 입주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다. 공익법인*(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설립 지원을 위해 주관 기관(행복청, 시청)과 절차, 내용, 비용지원 등 논의·검토

* 근거 : 「행복도시법」 제62조의9 제5항

<공동캠퍼스(4-2生)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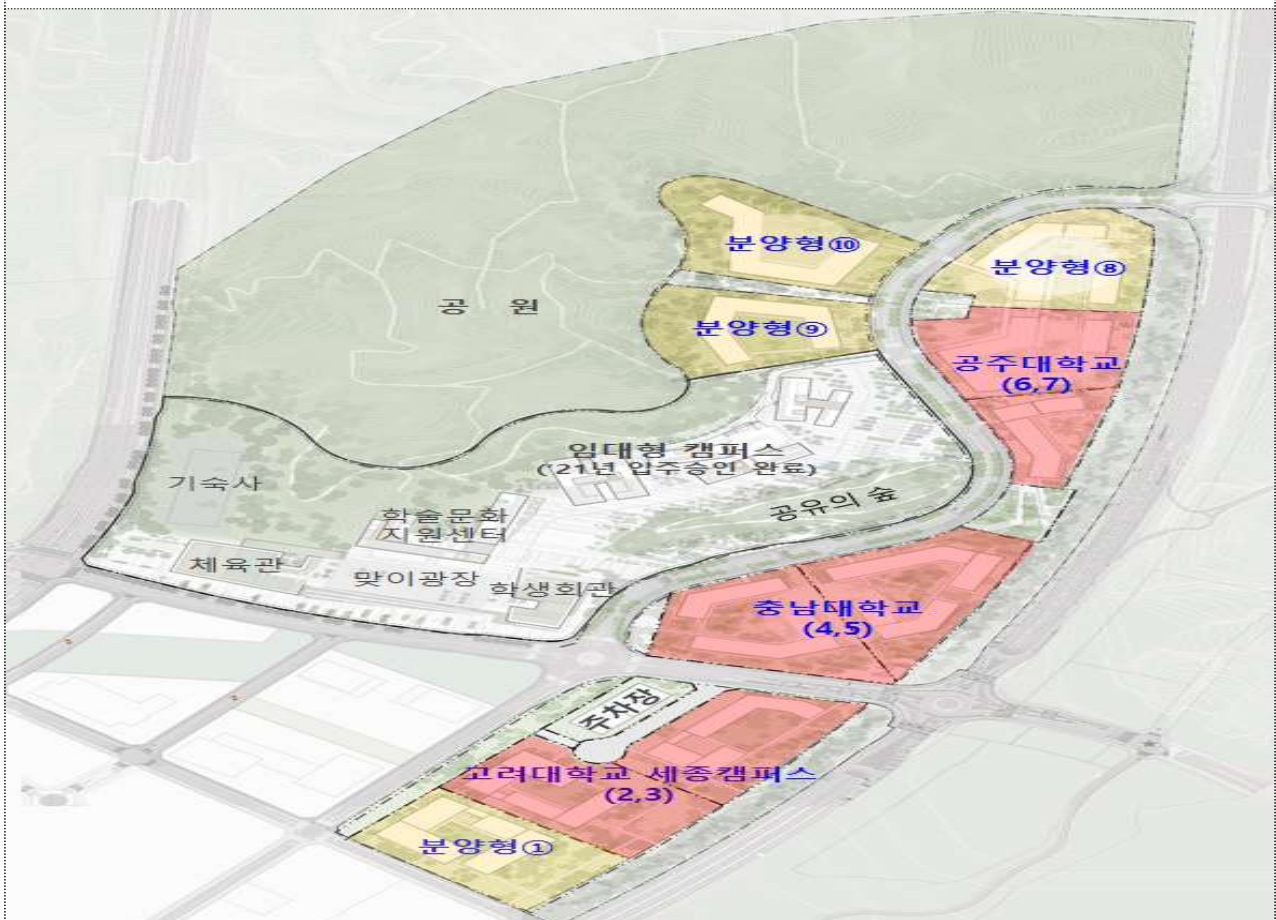
※ 중심부 : 임대형(강의실, 연구실 등 기본시설 / 도서관, 기숙사 등 공동시설),
주변부 : 소규모 분양형(개별 교사 건립)

<공동캠퍼스 입주승인 대학 배치도>

임대형



분양형



2. 산·학·연 협력 지원

가. 지역의 미래전략 산업분야(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등)와 연계한 대학유치·산학연 협력 추진

나. 기업·대학 수요 맞춤형 복합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환경 및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 의견수렴·협의를 추진

다. 세종시 미래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구축 지원

* 교육·연구·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것으로 4·2생활권 대학부지(대학4-1·6) 예정

<복합캠퍼스 위치도>



3. 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발굴

가. (행복청) 「행복도시법」 제63조의8에 의거해 유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 유치 및 홍보 필요

나. (시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원 검토

다. (국가·지자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지역협업체계'(지자체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홍보

4.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가. 의견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부, 행복청, 시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된 대학캠퍼스 유치 전략 확보
- 나. 기업과 지역산업,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IV 세부 활동계획(안)

1. 활동 내용

가. (위원회 회의) 6회

- 1) (1차, '23. 3. 9.)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기 실시
- 2) (2차, '23. 4. 26.)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 채택 및 市 집행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업무현황 보고·청취
- 3) (3~5차, '23. 5.~'24. 4.)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주요 안건 회의
- 4) (6차, '24. 5.)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수시 개최

나. (토론회 및 간담회) 2회

※ 필요 시 수시 개최

- 1) ('23. 9.) 효율적 공동·복합캠퍼스 조성 및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 ('24. 2.) 유관기관(행복청, 시청, 대학 등)과 그간의 추진경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다. (현장 방문) 1회

※ 필요 시 방문횟수 조정

- ('23.10.) '24년 개교예정 대학 등 대학캠퍼스(4生) 조성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추진

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1) 활동기간(2023. 2. 10. ~ 2024. 6. 30.) 동안의 주요 활동내역, 수범
사례 및 언론 보도내용, 운영성과 등 수록
- 2) 책자로 인쇄하여 활동기간 종료일(2024. 6. 30.) 전까지 본회의에 보고

2. 활동 일정

활동일정	주요 활동내용
2023. 3. 27.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개최 완료
2023. 4. 26.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 채택 - 관련 부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활동 로드맵 구상
2023. 6.~7.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관련 부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 '23년 대학유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주요 안건 처리
2023. 9.	○ 토론회 - 효율적 공동·복합캠퍼스 조성 및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3. 10.	○ 현장방문(4生 대학부지) - '24년 개교 예정 공동캠퍼스 대학 추진상황 확인 - 복합캠퍼스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일정	주요 활동내용
2023. 11.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관련 부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 '23년 대학유치계획 등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주요 안건 처리
2024. 2.	○ 간담회 - 유관기관(행복청, 시청, 대학 등)과 그 간의 추진경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4. 3.	○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관련부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 '24년 대학유치 업무계획, 공익법인 설립 현황 등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주요 안건 처리
2024. 5.	○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결과보고서 채택 - 특별위원회 추진실적 및 대학유치 추진결과 보고·청취
2024. 6.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본회의)

※ 특별위원회 진행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 등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소요 예산

가. (예산항목)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나. (예 산 액) 9,900천원('23년: 6,600천원, '24년: 3,300천원)

다. (집행기간) 2023. 2.~ 2024. 6.

라. (집행내용) 회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인쇄 등

붙임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2.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5
----------	------

발의연월일 : 2023. 1. 11.

발 의 의 원 : 김영현,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호숙, 안신일,
이순열, 최원석

1. 제안이유

- 세종시는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였고, ‘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음.
- 하지만 인접한 복합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을 위한 용역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2030년 행정수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성목적 :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6. 06. 30.
- 위 원 수 :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
- 전문위원 지정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 세부 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

붙임 2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3319
----------	------

제의연월일 : 2023. 2. 10.

제 의 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 제안사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 6. 30.까지
 - 전문위원 지정 : 교육안전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소속 상임위	성 명	비 고
계	10명	
행정복지위원회 (4 명)	최 원 석	
	김 현 미	
	임 채 성	
	유 인 호	
산업건설위원회 (3 명)	김 영 현	
	이 현 정	
	박 란 희	
교육안전위원회 (3 명)	김 현 옥	
	김 효 숙	
	안 신 일	

3

제3차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7.(목) 16:00

○ (장 소) 의회 5층 회의실(504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10명) 및 시청 관계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 (안 건)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 개의 및 인사말씀	위원장
16:05~17:00	55'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위 제3차 회의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17:00~17:05	5'	○ 산회 및 기념촬영 등	

□ 주요 내용

- 현재 임대형 캠퍼스 조성 공정률이 58%로 '24년 3월 입주대학(한밭대 등)의 원활할 개교지원 당부
-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테크벨리 내 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대학지원체계 연구용역 추진 시 지역대학과의 지속적 협의가 중요하고, 기업과 지역산업,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 필요
- RISE 5개년 기본계획 및 사업예산서를 '23년 12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용역 재입찰 추진 중으로 기능할지 우려
-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정책에 상응하는 캠퍼스 유치 전략 마련 필요
- 해외 협력도시와의 협의·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캠퍼스 유치 노력 당부
- 행·재정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기 전인 설계 단계부터 유관기관(행복청, LH 등)과 보다 적극적인 교류·필요
- 지역대학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조례 마련 당부
-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 학당등 검토하여 외국 학생·캠퍼스 유치전략 마련 제안

< 회의 사진 >



1

공동캠퍼스 조성

1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 (위치·기간) 4·2생활권 대학부지 약 60만㎡(18만평) / '19~'24년
- (조성방안) 대학부지 내 교육·연구시설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지원 시설(기숙사·도서관·식당 등)은 **공동으로 활용**
- (개발방식)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LH 직접 개발(2천억원)
* LH 건물건립·기부, 운영법인이 임대 / ** LH 부지조성·분양, 입주대학 교사(강의동) 건립

□ 추진경과

- (임대형 캠퍼스) '24년 개교 목표로 '22.7월 건축공사 착공, 개별 대학의 강의동과 그 외 공동시설 공사 중(8월말 기준 공정률 57%)
* 1차준공(24.3월) : 한밭대 강의동, 학생회관, 체육관 등/ 2차준공(8월) : 그외 강의동 등
- (분양형 캠퍼스) 10필지(16만㎡) 중 '21년 1차 분양(충남대·공주대 4필지), '23.2월 2차 분양(고려대 2필지) 완료
- (기숙사 건립) LH에서 부지 무상제공,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출자한 SPC에서 건립(총 326실, 500명 / 8층 / '23.5월~'24.8월)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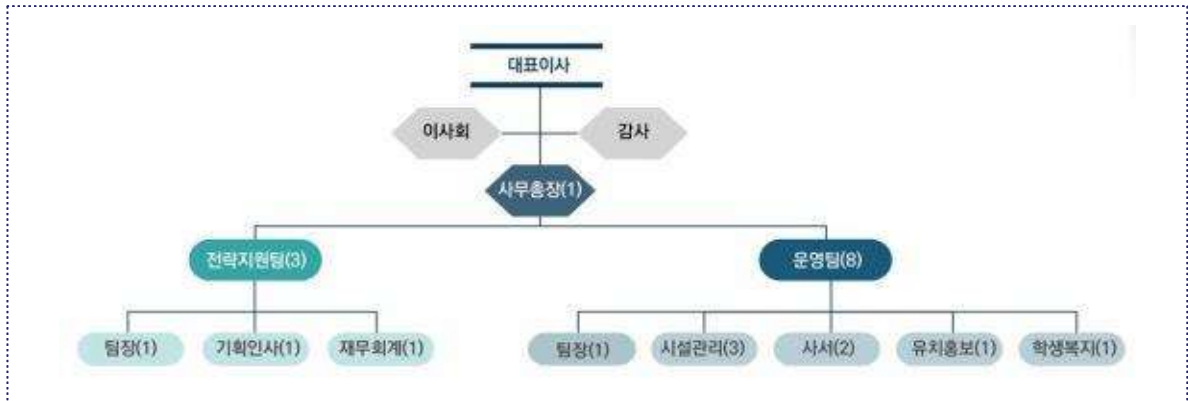
- (대학 개교지원) 市·행복청·5개대학은 입주대학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23.3월 1차, 6월 2차), 정주·교통여건 개선 추진
 - 주거 :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및 세종형 공공임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26년) 등 추진
 - 교통 : 공동캠퍼스 경유 BRT(오송↔반석) 증차* 및 공동캠퍼스와 주요거점(국립도서관·나성동)을 연결하는 버스노선(3개) 신설('24.上) 등
* 운행 대수 : 5대 → 8대 / 배차간격 : 20분 → 15분
- (운영법인 설립) 공동캠퍼스 부대시설관리, 입주기관 유치, 입주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23.11월)

2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 설립개요

- (운영조직)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의 입주대학 및 캠퍼스 시설을 관리할 운영법인*을(2팀 12명) 올해 11월 설립 예정(행복청)

* 운영법인 설립추진단 : 행복청(단장 : 도시국장), 시(청년정책담당관), LH, 용역진



* 대표이사는 행복청장 겸임, 사무총장(과장급) 포함 12명(이사회·감사 및 2개의 팀 구성)

- (설립일정) 발기인 구성(23.7월) → 운영규정제정·직원채용(8월~9월) → 설립등기·사업자등록(10월~11월) → 법인운영·임대계약 등(11월~24.3월)

□ 예산지원

- (예산 분담안) '23~'24년 전체 운영비(182억원) 중에서 지방세(115억원)를 제외한 순운영비(67억원)의 50%를 '24년에 예산 지원(33.7억원)

*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시 세종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운영비(a)	지방세(b)	순운영비(c=a-b)	시비(d=c/2)
합계	18,197	11,446	6,751	3,375
'23년	964	443	521	260
'24년	17,233	11,003	6,230	3,115

□ 향후계획

- (행특법 개정) 국회에 행특법 개정안 의견제출(8월), 법사위 상정(9월 예정)
- (예산 반영) '24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방침결정(9월) → 중기재정계획 심의(9월) → 조례 개정·본예산 심의(12월)

참고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현황



구분	입주 대학	정원	개교시기 (준공)
7개교		총 3,181명	
임대형	서울대학교(행정정책대학원)	72명	'24.9월
	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170명	'24.9월
	충남대학교(의대·대학원)	400명	'24.9월
	충북대학교(수의대·대학원)	150명	'24.9월
	한밭대학교(AI/ICT 관련 대학·대학원)	200명	'24.3월
	공용시설	학생회관, 체육관, 맞이광장, 지하주차장	'24.3월
		기숙사(500명 수용), 바이오지원센터, 학술통화지원센터	'24.8월
분양형	공주대학교(AI/ICT 대학·대학원)	599명	'24.2월(착공)
	충남대학교(AI/ICT 대학·대학원)	800명	'24.2월(착공)
	고려대학교(행정대학원, AI/ICT 대학)	790명	'26.2월(착공)

□ 용역개요

- (용역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목적) 교육부 대학지원사업이 지역 주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지역발전과 연계한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5개년('25~'29년) 계획 수립
- (소요예산) 80,000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④협상 우선순위 결정 및 협상 → ⑤용역사 선정 → ⑥계약 체결

□ 과업내용

- (지역-대학 연계현황 분석) 지역경제·산업·사회·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도출 및 지역인재 양성 방안 모색
- (RISE 추진체계 구축) 전담조직(RISE 센터) 대상기관 비교를 통해 기능 수행 적정기관 제시, 조직의 규모 및 인력확보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세종형 대학지원계획 도출)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및 발전방향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실수요에 기반한 5개년 대학지원계획 도출
- (재정투자·성과관리 계획 수립)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계획 도출

□ 향후계획

- 용역 개찰('23.8.25)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단독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적격심사를 통해) 또는 재입찰 추진

* 추진경과 : 용역 방침결정('23.7.28) → 감사위원회 계약심사(8.4) →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8.10) → 입찰공고(8.16) → 제안서접수·개찰(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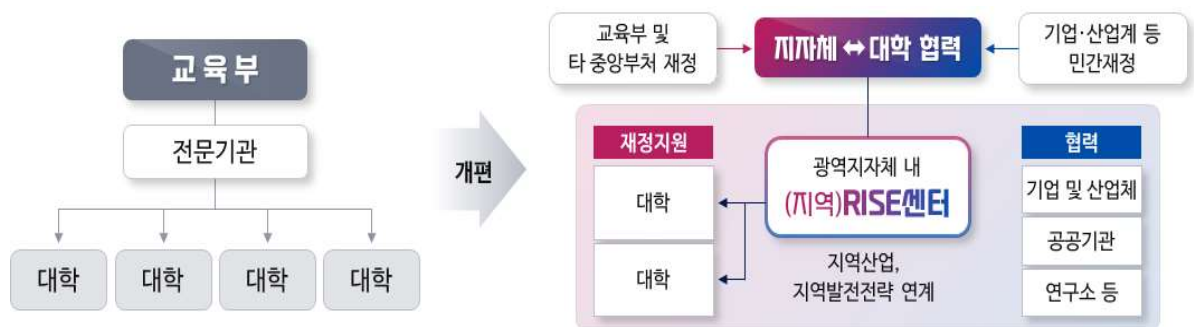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코로나19 및 소상공인지원 한시특례)

□ RISE 개요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개념)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협력체계
 - (재정)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예산(약 5천억원) 통합 운영 및 단계적 확대
- *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LINC3.0(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HiVE(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방대학성화사업 등

Ⅰ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Ⅰ



- (시도 역할)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으로 대학 특성화 및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 ①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계획('25~'29년) 수립, ②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③ 지역 RISE센터 지정·운영
 - * 시·도 : 대학지원사업 기획 → RISE센터 : 사업·성과관리 → 대학 : 사업 집행
- (추진일정) '23년 시범지역(7개 시도) 운영 → '25년 전 지역 확대
 - * 시범지역(7개 시도)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 적극적 재정투자 (경북 1.5조원, 대구 2,966억원), 전담조직 확보(경남 23명, 부산 28명) 등 선정

□ 추진일정

- 지방대육성협의회(지산학 협의체) 구성('23.11월 예정)
 - * 관련조례 제정중 : 방침(8월) → 입법예고·법제심사(9월) → 조례안 상정(10월)
- 지역 RISE센터(전담기관) 지정('23.12월) → RISE센터 구축('24.6월)
- RISE 5개년 기본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23.12, 지자체 → 교육부)
 - * RISE관련 정부예산안 제출('24.5, 교육부→기재부) → '25년 예산 확정('24.12.)
- 연도별 RISE 실행계획 수립('25.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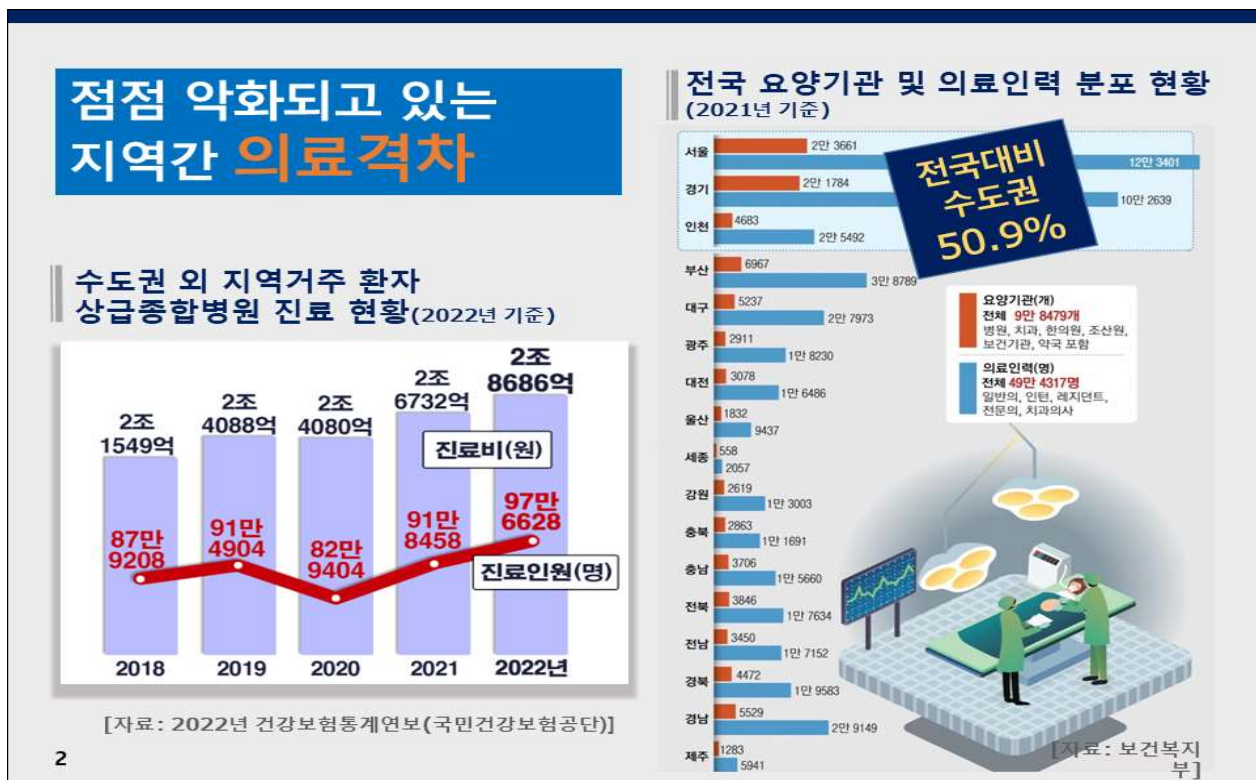
□ 발언 개요

- (회 의)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일 자) 2023. 11. 14.(화)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장(308호)
- (발 언 자) 김영현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장
- (제 목)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라”
- (내 용)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에 의과대학 설립 및 재정지원

< 발언 사진 >



첨부1 5분 발언 발표 자료



지자체들, 유치경쟁에 나섰다. 세종시는?



3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광역시도 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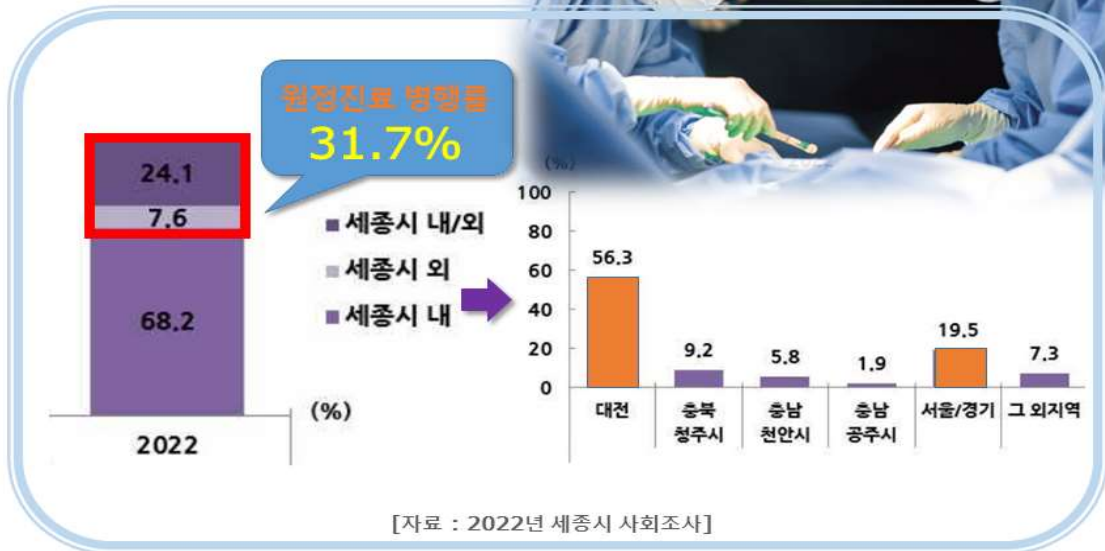
[자료: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인천 제주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세종 평균

4

시민 10명 중 3명, **의사없어 원정진료 간다**



5

제언 1. **시차원 전담조직 구성해야**

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주무관	의과대학 유치 추진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유치 전담부서는 물론 전담 TF까지 별도 구성해 의과대학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 전라남도 누리집]

6

제언 2.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해야



7

제언 3. 시민사회 역량 결집할 구심점 만들어



창원 의과대학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결기대회
<자료 : 창원시 누리집>



안동시 국립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기대회
<자료 : 안동시 누리집>



국립의과대학전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목포시청에서 성명서 발표
<자료 : 국립의대전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8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라.

-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OECD 주요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2.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역간 의료격차>

- 그사이 지방 의료체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기피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 즉,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으로 정부의 발표 직후 전국의 지자체들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 지자체들, 유치경쟁에 나섰다. 세종시는?>

-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가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신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 광역시·도만 보아도 충남이 국립 의과대학 신규 유치에 뛰어 들었고, 국립 의과대학이 있는 충북도 이번 기회에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 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30년 숙원을 풀겠다며 의과대학 유 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반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 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세종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 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 세종시는 2040년까지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 치·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합니다.

<4.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광역시도 최하위>

-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입니다.

<5. 세종시민 10명 중 3명, 의사없어 원정진료 간다>

- 전문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지금 이 순 간에도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 습니다.
-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며 이에 다음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6. 제언 1. 시 차원 전담조직 구성해야>

- 첫째,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할 시 차원의 전담 조직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 이곳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 홍보활동 등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7. 제언 2.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해야>

- 둘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이 담긴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캠퍼스 부지를 의과대학 설립 시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타당성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의과대학 유치를 연계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허브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뚜렷한 비전제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7. 제언 3. 시민사회 역량 결집할 구심점 만들어야>

- 셋째, 지역의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쉼기대회, 퍼포먼스 등 의과대학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우리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구심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4. 1. 24.(수) 19:00 ~ 20:30(90분)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회의실
- (참 석) 약 40명(특위 위원, 의장, 발제자, 토론자, 관계 공무원, 방청객 등)
- (토론내용)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 (공동주최) 대학유치특별위원회, 사단법인 새로운 생각 연구소

□ 시간 계획

시 간	주 제	내 용	비고
19:00~19:05	식전 행사	국민의례, 토론회 취지 설명	사회자
19:05~19:10	축사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19:10~19:45	주제 발표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	
19:45~20:15	지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1 : 세종시 교육 현황 (유우석 마을교육연구소 소장, 해밀초등학교 교장) · 토론2 : 세종시 대학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 (상병헌 시의원, 전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위원장) · 토론3 :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 모델 (김강산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 	
20:15~20:30	질의 응답		
20:30	폐회		

□ 주요 내용

-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학을 재배치하거나 충청권 국립대학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학 설립 방안임
-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청년 주체적 대학커리큘럼이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세종시 소재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설립 제안
- (가칭) 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연계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공립 통폐합 본부 세종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 방안 마련 필요
-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구체적인 제안은 특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음

< 주요 사진 >



▲ 김영현 위원장



▲ 참석자 단체 사진



▲ 토론회 진행 사진

첨부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토론회 자료

01

발제문

최 병 욱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

최 병 욱
한밭대학교 교수
choi@hanbat.ac.kr

대한민국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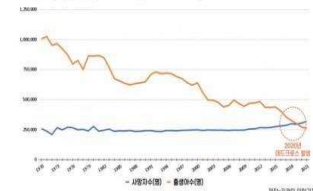
- 저출산
- 학령인구 감소
- 고령화
-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위기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자연소멸국 1호'이다

출처: 경기연구원출처: 경기연구원 | 승인: 2023.02.15 09:23

한국 젊은층 유입 줄고 폐교 증가
유례없는 초저출산 기록 맞닥뜨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주장
본보 통계청 OECD출산율 분석

자연감소(출생-사망) 발생 현황(1970~2021)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자연감소(출생-사망) 현황을 정리한 표. 제작: 김광미, 한정기차

<http://www.ggjclub.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5>

1970~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22500252>

2021년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 (4만명)

동아일보

2021-05-20 14:10:00 편집

로그인 | 회원가입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4만명...지방대 75% 집중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구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규모	52교	94.4%	29교	97.7%	23교	87.4%
중규모	143교	90.9%	94교	94.4%	49교	82.0%
소규모	79교	87.0%	47교	88.4%	32교	84.9%
극소규모	57교	81.5%	28교	73.4%	29교	84.7%
계	331교	91.4%	198교	94.8%	133교	84.4%

※ (일반대) 입학정원 3000명 이상, 1000~3000명, 250~1000명, 250명 미만으로 구분
(전문대) 입학정원 2000명 이상, 1000~2000명, 400~1000명, 400명 미만으로 구분

자료: 교육부

news1

@News1

전체 대학에서 올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에서 미충원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위기가 더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20일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대학 331개교의 충원율은 지난 3월 기준 91.4%(43만2603명)로 집계됐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7만3166명이었다.

미충원 인원은 4만566명(8.6%)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만 3만456명이 발생해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0%를 차지했다.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이 5.3%로 지방대가 더 높았다.

2021년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 (4만명)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68,01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92.2)	180,581 (92.2)	15,367 (7.8)	87,175	72,084 (82.7)	15,091 (17.3)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의 입학생 제외
- 자료: 교육부

2021학년도 일부 대학 충원 현황

대학	모집인원	등록인원	미충원 인원	등록률
한밭대	1,852	1,845	-7	99.6%
충남대	3,571	3,554	-17	99.5%
대전 사립대 A	2,048	1,810	-238	88.4%
대전 사립대 B	1,825	1,617	-208	88.6%
대전 사립대 C	2,016	1,831	-185	90.8%
대전 사립대 D	1,945	1,739	-206	89.4%
대전 사립대 E	1,627	1,519	-108	93.4%
전남대	4,207	4,067	-140	96.7%
강원대	4,800	4,733	-67	98.6%
경북대	4,624	4,555	-69	98.5%
순천대	1,641	1,473	-168	89.8%
목포대	1,581	1,377	-204	87.1%
군산대	1,739	1,504	-235	86.5%
강릉원주대	1,839	1,706	-133	92.8%
안동대	1,468	1,070	-398	72.9%
전북 사립대 A	3,543	2,833	-710	80.0%
전남 사립대 B	1,689	1,520	-169	90.0%
경북 사립대 C	4,070	3,290	-780	80.8%

지역별 일반대학 신입생 총원율 (2020-2023년)

권역	시도	2023 정원내 입학정원	2023 전체 입학자	2023 정원내 입학자	2023 정원외 입학자	2023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2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1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0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수도권	서울	73,785	86,128	73,714	12,414	99.9	99.7	99.5	99.7
	경기	37,708	41,602	37,291	4,311	98.9	98.7	98.5	99.1
	인천	6,899	7,714	6,882	832	99.8	99.9	98.7	99.9
	소계	118,392	135,442	117,887	17,557	99.6	99.4	99.2	99.8
충청권	대전	17,818	18,917	17,518	1,339	98.3	97.2	94.8	99.4
	세종	2,788	2,987	2,754	233	98.8	99.0	98.6	98.7
	충남	26,770	29,016	26,601	2,415	99.4	97.9	96.4	99.6
	충북	15,678	15,871	14,747	1,124	94.1	94.5	93.0	99.4
	소계	63,054	66,791	61,620	5,171	97.7	96.9	95.0	99.3
대경강원권	대구	9,882	10,683	9,907	776	100.3	99.8	98.5	99.9
	경북	24,200	24,440	22,732	1,708	93.9	91.7	88.1	96.6
	강원	14,861	14,976	13,744	1,232	92.5	90.3	89.2	99.3
	소계	48,943	50,099	46,383	3,716	94.8	92.9	90.6	98.3
동남권	부산	29,043	30,639	28,004	2,635	96.4	94.7	93.0	98.7
	울산	3,127	3,321	3,131	190	100.1	99.4	96.9	99.5
	경남	11,429	11,472	10,801	671	94.5	88.1	85.0	95.4
	소계	43,599	45,432	41,936	3,496	96.2	93.2	91.1	98.0
호남제주권	광주	13,705	13,887	13,091	796	95.5	99.0	96.5	99.6
	전남	7,936	7,964	7,384	580	93.0	93.1	89.6	95.6
	전북	14,482	15,015	13,847	1,168	95.6	92.0	89.3	99.6
	제주	2,545	2,370	2,207	163	86.7	87.7	89.4	91.4
	소계	38,668	39,236	36,529	2,707	94.5	94.4	92.1	98.0
합계		312,656	337,002	304,355	32,647	97.3	96.4	94.9	99.0

대학알리미 자료 재처리

7

지역별 일반대학 신입생 총원율 및 입학자수 변화 (2020-2023년)

지역별 정원내 총원율 변화 (2020~2023)

(단위: %)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99.8	99.5	99.4	99.6
충청권	99.3	95.0	96.9	97.7
대경강원권	98.3	90.6	92.9	94.8
동남권	98.0	91.1	93.2	96.2
호남제주권	98.0	92.1	94.4	94.5
합계	99.0	95.0	96.4	97.3

지역별 정원내 입학자수 변화 (2020~2023)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116,116	116,697	117,752	117,887
충청권	63,376	60,917	62,153	61,620
대경강원권	50,194	45,966	46,626	46,383
동남권	46,117	42,683	41,768	41,936
호남제주권	39,131	36,834	37,436	36,529
합계	314,934	303,097	305,735	304,355

대학알리미 자료 재처리

8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2020-2023년)

권역	시도	2023 정원내 입학정원	2023 전체 입학자	2023 정원내 입학자	2023 정원외 입학자	202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2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2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2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	서울	15,302	19,184	15,178	4,006	99.2	99.6	98.8	100.0
	경기	44,290	49,106	37,164	11,942	83.9	83.7	82.2	97.1
	인천	6,143	6,983	5,570	1,413	90.7	87.6	93.3	100.0
	소계	65,735	75,273	57,912	17,361	88.1	87.7	86.6	97.5
충청권	대전	6,211	6,052	5,068	984	81.6	74.2	71.8	90.1
	세종	1,096	1,258	1,004	254	91.6	94.1	82.3	96.2
	충남	5,392	5,739	4,596	1,143	85.2	75.5	76.1	89.0
	충북	5,055	4,919	4,154	765	82.2	76.7	72.6	87.0
	소계	17,754	17,968	14,822	3,146	83.5	76.4	74.2	89.7
대경 강원권	대구	12,661	15,256	12,261	2,995	96.8	94.4	88.2	94.6
	경북	10,097	12,370	9,282	3,088	91.9	88.4	87.3	93.2
	강원	3,466	3,727	2,971	756	85.7	85.5	82.0	90.1
	소계	26,224	31,353	24,514	6,839	93.5	90.9	86.5	93.2
동남권	부산	8,533	9,476	7,215	2,261	84.6	84.5	75.1	85.8
	울산	2,590	3,156	2,428	728	93.7	92.0	93.0	97.8
	경남	6,874	7,277	5,953	1,324	86.6	86.6	84.5	90.0
	소계	17,997	19,909	15,596	4,313	86.7	86.3	81.5	85.3
호남제주권	광주	5,830	6,787	5,346	1,441	91.7	94.7	92.7	97.7
	전남	6,450	6,535	5,435	1,100	84.3	82.7	84.1	88.5
	전북	6,067	6,574	5,278	1,296	87.0	88.0	91.2	96.4
	제주	2,381	2,264	1,809	455	76.0	76.9	78.9	94.3
	소계	20,728	22,160	17,868	4,292	86.2	86.8	87.6	91.8
합계		148,438	166,663	130,712	35,951	88.1	86.5	84.4	94.3

대학알리미 자료 재정리

9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자수 변화 (2020-2023년)

지역별 정원내 충원율 변화 (2020~2023)

(단위: %)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97.5	86.6	87.7	88.1
충청권	89.7	74.2	76.4	83.5
대경강원권	93.2	86.5	90.9	93.5
동남권	85.3	81.5	86.3	86.7
호남제주권	91.8	87.6	86.8	86.2
합계	94.3	84.4	86.5	88.1

지역별 정원내 입학자수 변화 (2020~2023)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71,140	61,035	59,690	57,912
충청권	20,054	15,854	15,203	14,822
대경강원권	26,752	24,279	24,415	24,514
동남권	19,509	17,072	16,624	15,596
호남제주권	21,646	19,481	18,938	17,868
합계	159,101	137,721	134,870	130,712

대학알리미 자료 재정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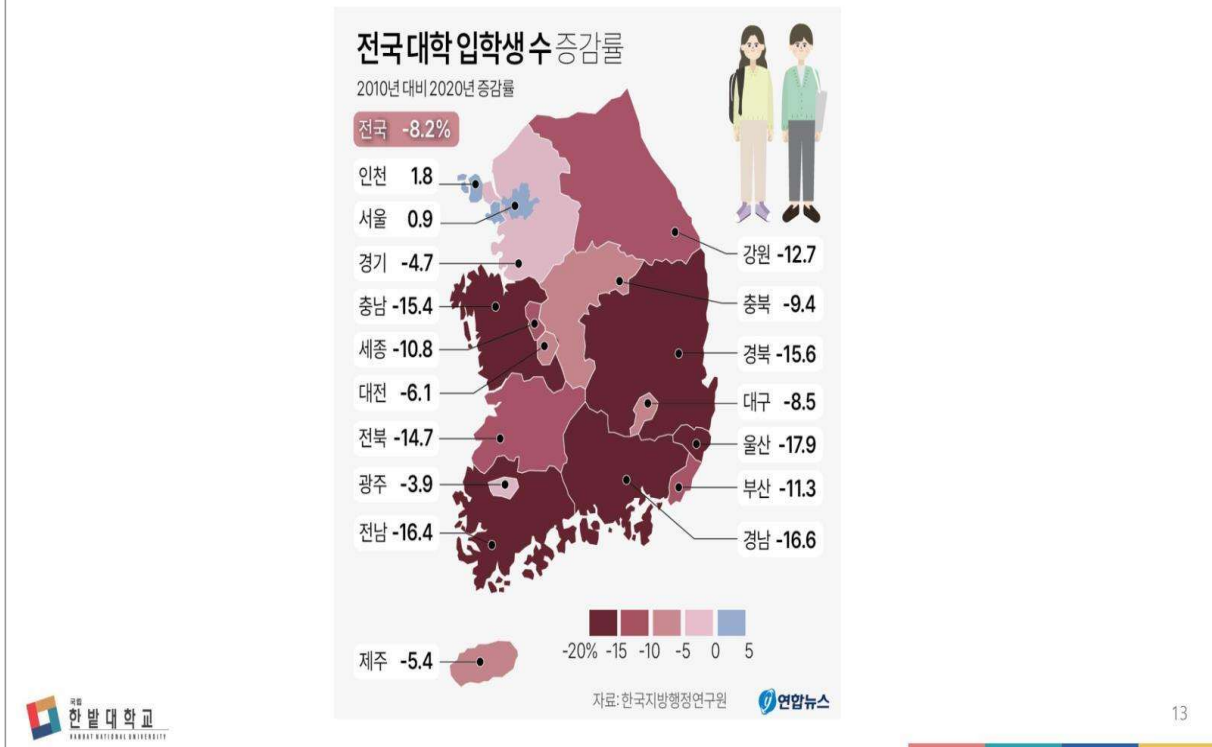
지역별 일반대학 재학생 총원율 (2022년 하반기)

권역	시도	학생정원*	전체 재학생	정원내 재학생	전체 재학생 총원율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수도권	서울	296,094	342,880	277,042	115.8	93.6
	경기	151,477	159,755	138,161	105.5	91.2
	인천	27,597	28,783	24,657	104.3	89.3
	소계	1,762,413	1,844,787	1,580,533	104.7	89.7
충청권	대전	73,721	72,704	65,183	98.6	88.4
	세종	10,994	11,085	9,801	100.8	89.1
	충남	108,927	108,710	95,598	99.8	87.8
	충북	64,613	61,702	56,296	95.5	87.1
	소계	258,255	254,201	226,878	98.4	87.9
대경 강원권	대구	40,204	41,328	37,002	102.8	92.0
	경북	101,367	92,229	83,368	91.0	82.2
	강원	64,159	58,721	52,969	91.5	82.6
	소계	205,730	192,278	173,339	93.5	84.3
동남권	부산	121,969	120,005	107,114	98.4	87.8
	울산	12,634	12,277	11,142	97.2	88.2
	경남	51,571	47,658	43,792	92.4	84.9
	소계	186,174	179,940	162,048	96.7	87.0
호남 제주권	광주	56,819	56,859	50,952	100.1	89.7
	전남	32,601	29,249	26,529	89.7	81.4
	전북	62,153	60,061	52,591	96.6	84.6
	제주	10,345	9,363	8,476	90.5	81.9
	소계	161,918	155,532	138,548	97.5	86.8
합계		1,287,245	1,313,369	1,140,673	102.0	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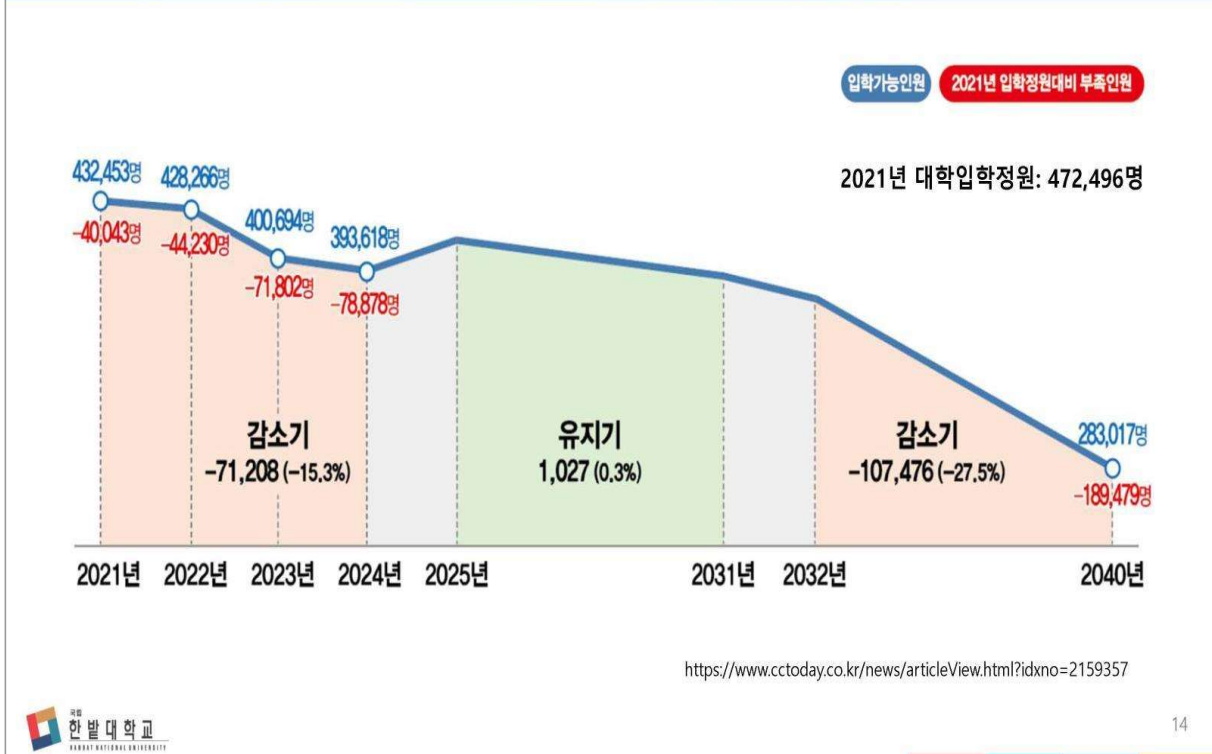
지역별 전문대학 재학생 총원율 (2022년 하반기)

권역	시도	학생정원*	전체 재학생	정원내 재학생	전체 재학생 총원율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수도권	서울	36,937	38,405	31,981	104.0	86.6
	경기	115,515	112,832	89,976	97.7	77.9
	인천	14,549	15,208	12,226	104.5	84.0
	소계	556,705	543,528	439,318	97.6	78.9
충청권	대전	17,222	14,057	11,756	81.6	68.3
	세종	3,091	2,946	2,590	95.3	83.8
	충남	15,293	13,161	10,973	86.1	71.8
	충북	13,665	11,609	9,967	85.0	72.9
	소계	49,271	41,773	35,286	84.8	71.6
대경 강원권	대구	30,709	31,516	25,552	102.6	83.2
	경북	27,742	27,323	21,238	98.5	76.6
	강원	9,362	9,020	7,104	96.3	75.9
	소계	67,813	67,859	53,894	100.1	79.5
동남권	부산	23,400	21,633	17,413	92.4	74.4
	울산	7,247	8,115	6,408	112.0	88.4
	경남	19,229	18,779	15,646	97.7	81.4
	소계	49,876	48,527	39,467	97.3	79.1
호남제주권	광주	14,740	15,338	12,273	104.1	83.3
	전남	17,874	15,330	12,783	85.8	71.5
	전북	16,096	15,759	12,632	97.9	78.5
	제주	7,033	6,052	4,617	86.1	65.6
	소계	55,743	52,479	42,305	94.1	75.9
합계		389,704	377,083	305,135	96.8	78.3

전국 대학 입학생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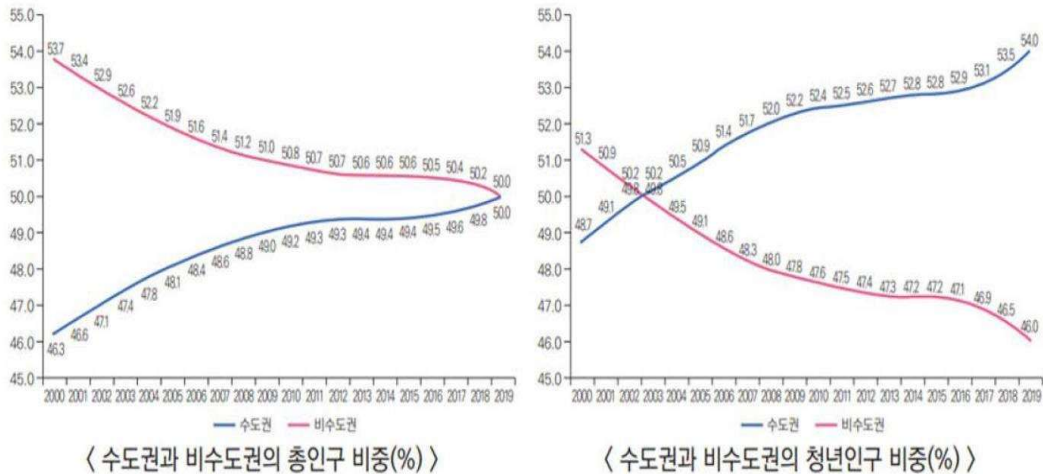
대학입학 가능 자원 전망 (2021~2040)



고등교육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의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출처: 강원도의회 정책 Letter (2021. 4.)

권역별 20~29세 인구 순이동자 수 (2021)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3년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현황

● 3년간 감축인원: 16,575명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대상학교 수	60	69	91
	감축인원	2,155	5,043	9,377
수도권 (연평균 24.7%)	대상학교 수	12	21	38
	감축인원	459	1,137	2,848
	비율	21.3	22.5	30.4
지방 (연평균 75.3%)	대상학교 수	60	72	89
	감축인원	1,696	3,906	6,529
	비율	78.7	77.5	69.6

출처: 도중한 의원실

매일경제
수도권대 1천300명 증원 계획...지방대학 반발 커질 듯

"지방대 학생들 다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 우려
대학 정원 감축 계획과도 상충...교육부 "별도 정책 고민"
다른 산업·기초학문과의 불균형 문제도 대두

입력 : 2022.07.19 15:00:02 수정 : 2022.07.19 15:06:06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수도권대 규제도 풀다

석박사 110명 학사 200명 원단위 100명 등

교육부가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대 교원 확보와 신증설 계획이 상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방대 정원 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 정원 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방대 정원 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 정원 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방대 정원 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배·차’ 필수인력 고갈 위기…수도권大 정원제한 철폐 시급

〈반도체·배터리·자동차〉

<4> 산업전략 고도화-인재가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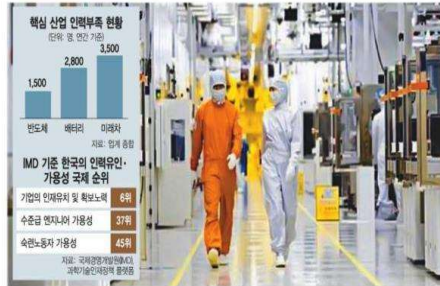
과학기술이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테크니카 시대이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습득하고 운용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 모자란다. 기초학회는 물론이고 수출산업에 위한 실용 과학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지 오래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와 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 분야는 인력 확보 사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다. 거시적 관점에서 인력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은 아득하다.

이공계 입학인원 급감에 반도체 인력 年 1,500명 모자라
배터리·車도 인력난 심각- '산업 침체' 日 전철 밟을수도
자금 모이는 곳에 인재 몰려- 다양한 R&D에 장기투자를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지난 2019년 19만 9,000명에서 오는 2030년 15만 1,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학기술 분야 학사 이상 신규 인력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8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4만 7,000명, 무려 60배 가까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과학기술 인력 부족의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며 그것을 구현할 주체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3나노미터(nm ·10억 분의 1m) 공정으로 만든 칩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력이 갈수록 줄어들어 새로
은 온도의 디지털이 되어 있다.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사립은 보다 유망한
효율인 5와 효율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는 기술은 반도체 대량 단계로 달리고 있
고 있지만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력
이 부족해 해결하는 중이다. 정부는 연
간 1,500명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다
는 게 산업界的인 견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반도체 관련 학
과 전공 석·박사 졸업자 수는 143명인
것만은 2019년 9월 92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설계 분야
교육은 전례없이 100명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다. 해외가 인재 양성에 앞서는 실정이다.



석·책사 인력은 100~150명에 불과하지만
많은 기업 수로는 연간 1,000명 이상이다.
인력난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들은 다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답니다. 점을 고쳐보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배트남과 스미
링크-인도 등 해외인력을 구하는 차
선택을 택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으로 손꼽는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주
차고 설계 인력 등 핵심 부서에 추가
할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반대로 대기업의 고령 관계자는 '일
본 밴드도 산업이 10년째 인력 부족으로
가려졌고 있어'는 것처럼 한국도 어느 순간
인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

는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한수원의 기대인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와 동일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다. 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가 따르
는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규모는 2020년 30
억 달러에서 2030년 3,047억 달러로 1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기술 연구
개발 인력은 1,013명, 학사급 공인 인
력은 1,81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
다. 정부는 배터리 3개 대표들이 지난해
6월 '한국소스 인력' 회의를 요청하
고, "1,000명 이상" 수준으로 산업계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요했지만 그 규모도 실현 가능성이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 입법과 자율준수와 전기차
대한 정책 입안이 부족해 내년 1월에
미래로써 넘어가는 산업 대전환기에
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난해 실시되는 조사에 따르면 2028년까
기둥 등이 계획된 총 8만 9,068명의
래자 인원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시키
해서는 연간 4,600명가량의 인력이 충
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연간 1,1
에 명 규모의 전환정착 인력을 배출할
내년 6월 30일 인력 수를 연간 2,300
대로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인계가

[illegible]

설익은 증원 정책에 직격탄... “지방대 살릴 대책 세워라”

7개 권역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 8월 31일 유기홍 위원장과 간담회

비수도권 108개 대학, 반도체 수도권 학과 증원에 반대 입장문 전달
대학 총장들 “지방대 시대 역행…반도체학과 교수 확보도 힘들어”
유 위원장 “대학 격차 생태계 안돼…지방대 살리는 정책 요구할 것”

지방대 총장들이 수도권 대학의 반대세력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정원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 증원이 지역소멸을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비수도권 7개 국외 국·시·도별 총장들은 유·고교 교육인재충족의 긴급피 자리에서 "학생인구 급감 등 지방대를 직접 타격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학교 증원에 우리 지방대 총장과 구정원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월 31일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
정협의회'의 연합(회장 이우철, 청운대 총
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장을 만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한 수도권 증원을 반대하
는 지역대학의 입장을 전달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정협의회는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국 국·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에
분교가 있는 대학을 제외한 108개 대
학이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날 유 위원장에게 "정부가

하는 것은 지방대 시대를 위한 국경 과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역대에 직접 타격을 주는 수도권 증원 정책은 철저히 반대'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내내 반도제 양적 목표 현상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가 지난 7월 현재 10대인 15만 명의 반도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정년분기는 교원 확보만 다면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발표해 지방대의 경한 반발을 사고 있다.

유기농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낫는 대학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와 같은 지방거점교과단과자 정년학과 교육은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 재정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지역인재 채용과 같이 지방대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총장들은 간담회 후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동해 도종환 국회 교육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소속 총장들이 지난날 31일 국회 소동관에서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명섭 기자 prohange@unn.net

정권을 잃어주실 요구한다"며 "이 번 선거에서 함께 교육과학기술 대학이 지금과 같은 강박에 주권대응이 있는 대학정책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 면 아니라 교육적, 모란인 일관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우리 자치단체 정풍 들은 상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목 소리를 지냈다.

이어 "지난 7월 발표된 교육부의 번 도제 관련 안건상정 방안은 번도제 인 원들이 번도제에 이르면 번도제 관련 상은는 대안제에 대한 번도제 심정"이라 "지방대학 살리고 질 높은 번도 제 인력 양성을 위한 번도제 대학 관련 방안은 간담에 대학정책 정풍과 번도제는 순순히 번도제에 인력정풍을 하겠다

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7월 22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주권이 아닌 자체 구조정형을 통해 정부에서 나오는 권력의 반체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대입의견이 "우리 7개 권역 대입 총합의율의 연평균은 이러한 국가경쟁력강화의 의지와 향후 추경발표를 비롯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인제성장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주"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렇듯 대입 총합의율은 지난 10박산에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수순 정한 교육 개혁의 과정의 부속품과 폐해에 대한 우려를 절감할 만하다.

대학들의 교육재정은 어떠한가?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2022년 기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포항공과대학교	124,079,39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4,124,649
광주과학기술원	94,641,057
한국과학기술원	94,337,940
울산과학기술원	77,545,991
서울대학교	58,038,678
평균	71,442,131

상위 10개 종합 사립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연세대학교	39,943,118
고려대학교	32,087,336
성균관대학교	30,169,115
가톨릭대학교	28,703,801
한림대학교	28,220,475
한양대학교	27,686,727
아주대학교	27,183,759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24,500,602
울산대학교	23,803,509
순천향대학교	22,868,257
평균	30,260,967

비의대 상위 10개 종합 사립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한국항공대학교	19,648,117
고려대(세종)	19,593,369
서강대학교	19,196,036
한동대학교	19,191,449
한국공학대학교	17,619,248
세종대학교	16,928,985
국민대학교	16,730,323
숙명여자대학교	16,011,826
광운대학교	15,735,007
동국대(WISE)	15,115,079
평균	17,264,002

상위 10개 국립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남대학교	24,124,636
경북대학교	23,839,172
충북대학교	23,690,474
부산대학교	23,129,921
목포해양대학교	22,620,863
충남대학교	22,285,198
목포대학교	21,527,590
전북대학교	21,407,373
한국해양대학교	21,360,312
강원대학교	20,953,573
평균	22,804,938

*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교계 대학 제외

*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교계 대학 제외

지역별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 2022년)

권역	시도	총교육비 (원)	재학생 수 (명)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수도권	서울	8,728,605,985,817	434,107	20,107,038
	경기	3,319,681,437,959	201,581	16,468,226
	인천	423,890,447,946	21,119	20,071,521
	소계	12,472,177,871,722	656,807	18,989,106
충청권	대전	730,548,028,944	54,261	13,463,593
	세종	146,554,791,893	7,363	19,904,223
	충남	1,543,716,394,919	97,233	15,876,466
	충북	588,286,752,681	43,270	13,595,719
	소계	3,009,105,968,437	202,127	14,887,204
대경권	대구	321,329,222,017	22,716	14,145,502
	경북	1,745,863,775,267	98,176	17,783,000
	경북	1,335,657,292,013	94,870	14,078,816 → (포항공대 제외)
	강원	722,482,335,356	40,441	17,865,096
	소계	2,789,675,332,640	161,333	17,291,412
	소계	2,379,468,849,386	158,027	15,057,356 → (포항공대 제외)
동남권	부산	1,093,476,788,920	88,794	12,314,760
	울산	315,729,738,372	13,264	23,803,509
	경남	445,943,909,752	30,697	14,527,280
	소계	21,512,530,803,196	1,258,541	17,093,230
호남 제주권	광주	609,109,129,137	46,710	13,040,230
	전남	180,990,709,793	14,699	12,313,131
	전북	584,633,326,977	43,431	13,461,199
	제주	11,688,027,446	679	17,213,590
	소계	1,386,421,193,353	105,519	13,139,067
합계		21,512,530,803,196	1,258,541	17,093,230

- 비수도권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15,023,836 원**
(포항공대 제외시 **14,421,361 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과 비교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 (2018년 기준)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USD)
룩셈부르크	47,694
미국	34,036
영국	29,911
스웨덴	26,147
노르웨이	25,428
캐나다	24,496
네덜란드	20,898
오스트레일리아	20,647
독일	19,324
일본	19,309
핀란드	18,170
프랑스	17,420
이탈리아	12,305
대한민국	11,290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적인 이유로 경쟁력 확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대학은 더욱 그렇다.

대학들의 경쟁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대학 경쟁력 (과기특성화대, 국립거점대, 수도권 주요 사립대) (2022년 기준)

과학기술 특성화대 등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국제기준)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포항공과대학교	124,079,396	1.0932	763,423	245	3,583,156,114
DGIST	104,124,649	0.8207	373,441	109	1,534,813,238
GIST	94,641,057	0.9839	507,653	86	952,137,051
KAIST	94,337,940	1.0802	729,801	417	6,946,159,653
UNIST	77,545,991	1.0018	504,001	205	1,453,785,063
서울대학교	58,038,678	0.9757	306,959	655	8,078,965,918

거점국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국제기준)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전남대학교	24,124,636	0.5591	178,695	83	2,606,598,445
경북대학교	23,839,172	0.7275	166,274	165	3,745,754,769
충북대학교	23,690,474	0.6159	147,260	44	2,785,926,173
부산대학교	23,129,921	0.5967	147,466	73	1,860,966,533
충남대학교	22,285,198	0.6061	175,662	62	3,584,538,938
전북대학교	21,407,373	0.5922	155,918	41	1,676,742,344
제주대학교	20,953,574	0.4698	107,824	31	619,245,458
경상국립대학교	20,126,824	0.4496	107,721	76	970,959,337
강원대학교	19,895,906	0.5496	142,916	20	2,473,162,138

수도권 주요 사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국제기준)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연세대학교	39,943,118	0.9706	322,743	454	4,665,018,679
고려대학교	32,087,336	0.8527	320,513	462	4,112,439,724
성균관대학교	30,169,115	1.0679	363,040	270	2,707,454,239
한양대학교	27,686,727	0.7964	277,437	261	27,895,785,824
아주대학교	27,183,759	0.6854	188,381	150	2,163,488,294
한양대(ERICA)	22,865,517	0.5657	240,609	127	1,355,465,647
이화여자대학교	21,326,390	0.5096	172,964	109	1,333,022,184
인하대학교	20,122,414	0.5785	184,499	35	1,116,671,733
한국항공대학교	19,648,117	0.3527	151,933	24	323,108,205
서강대학교	19,196,036	0.3837	157,743	50	1,017,493,974
한국공학대학교	17,619,248	0.1442	80,620	9	567,336,346
동국대학교	17,521,958	0.7023	115,020	22	650,851,363
중앙대학교	17,498,434	0.7345	197,977	34	1,441,464,676
경희대학교	17,304,619	0.7346	131,677	163	5,157,129,153
세종대학교	16,928,985	0.8536	176,928	160	5,149,975,972
국민대학교	16,730,323	0.3483	147,228	59	2,076,490,910
건국대학교	16,669,480	0.6621	153,771	48	1,010,412,070
숙명여자대학교	16,011,826	0.2528	101,355	27	1,112,696,569
가천대학교	15,810,853	0.8356	120,326	32	1,173,290,680
광운대학교	15,735,007	0.4848	161,053	38	1,051,283,365

대학 경쟁력 (비거점 국립대 vs 지방 주요 사립대) (2022년 기준)

비거점 국립대학 (17개)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억원)
목포해양대학교	22,620,863	0.2345	108,930	0	23,430,000
목포대학교	21,527,590	0.2976	148,558	1	2,137,125,909
한국해양대학교	21,360,312	0.4588	145,895	6	348,071,283
창원대학교	20,671,256	0.3294	108,484	17	1,246,858,600
안동대학교	19,916,117	0.3273	86,739	10	429,918,179
인천대학교	19,594,286	0.5817	94,878	25	436,881,800
한국교통대학교	18,876,396	0.3086	107,915	57	119,518,180
순천대학교	18,789,003	0.4059	119,452	14	679,200,000
금오공과대학교	18,692,650	0.5919	124,279	19	445,670,600
서울시립대학교	18,447,831	0.4173	140,219	32	191,574,810
군산대학교	18,442,193	0.2757	114,668	0	326,754,54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8,312,652	0.5794	139,923	24	532,877,036
강릉원주대학교	17,892,734	0.3272	60,449	5	1,221,227,271
부경대학교	17,819,185	0.5357	159,217	34	644,510,908
한경대학교	17,644,151	0.3080	83,126	2	691,454,546
한밭대학교	17,261,212	0.4531	95,754	10	77,171,000
공주대학교	16,160,354	0.4002	111,508	7	237,181,816

지방주요 사립대 (20개)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3,586,831	0.5575	154,995	27	371,363,638
한림대학교	28,220,475	0.5166	100,728	6	468,740,979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24,500,602	0.4982	73,028	18	502,900,000
울산대학교	23,803,509	0.6386	145,476	97	933,957,163
순천향대학교	22,868,257	0.4268	67,416	26	585,972,626
고려대학교(세종)	19,593,369	0.4029	135,438	24	274,990,090
인제대학교	19,226,513	0.4232	62,290	18	1,022,242,544
한동대학교	19,191,449	0.2217	55,120	0	20,000,000
건국대학교(글로벌)	17,740,595	0.3412	45,050	6	846,490,057
건양대학교	16,416,268	0.1187	41,750	3	75,000,000
원광대학교	15,906,541	0.2224	69,633	49	434,090,910
영남대학교	15,389,485	0.8762	79,785	13	1,421,757,727
동국대학교(WISE)	15,115,079	0.2701	61,868	4	62,642,181
고신대학교	14,969,551	0.2439	24,615	2	1,000,000
선문대학교	14,800,875	0.2276	28,360	1	222,663,635
조선대학교	14,676,482	0.3760	100,457	30	683,207,980
대구한의대학교	14,551,575	0.0972	35,266	2	280,450,000
대전대학교	14,410,425	0.1532	67,362	2	181,700,000
한서대학교	14,403,375	0.2040	48,138	0	77,827,887
계명대학교	14,145,502	0.3227	50,766	30	524,204,545

* 교원양성대, 체육대 제외



(2022년 기준)

31

한국 대학 경쟁력 현황

64개국 대상, 2021년 기준

대학교육경쟁력 47위

교육경쟁력 30위

국가경쟁력 23위

영국 QS* 대학 종합평가

300위 내 대학 수, 2021년 6월 기준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중국 상해교통대 대학 종합평가

300위 내 대학 수, 2021년 8월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32

한겨레

대학교육 고급화, 어떻게?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초등학생 4시간46분, 중학생 5시간57분, 고등학생 6시간44분, 대학생 이상 3시간29분.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다. 한국 대학생의 학습시간은 심지어 초등학생보다도 한참 더 적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탄탄한 기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청년기 마지막 기회인 대학 시절, 많은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적인 학습이 대학 입학 문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학 동안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학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소규모 토론 강의와 다양한 방식의 실험·실습·현장체험 등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흥미로운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뒤처지는 학생들은 따로 보충하고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학생은 낙제시키는 엄격함도 필요하다.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투입 없이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하다. 대학생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연간 교육비는 연구개발(R&D)까지 합쳐도 2017년 1만633달러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인 1만6327달러에도 크게 밑돈다. 한국의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거의 최하 수준이다. 한국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도적은 참 보기 드문 국가다.

부분 개선이 아닌 전면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등록금을 자율화에 대학교육을 시장에 완전히 내맡길 것이 아니라면, 대학교육을 고급화하는 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치 정도까지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투자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어떻게 지원할지도 다시 깊게 고민해야 한다. 특정 대학이나 전공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 10년 넘게 지속된 이러한 특수목적 사업 방식의 대학 지원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지 않은 대학이나 전공, 대충 배워도 괜찮은 학생이란 없다. 대학 입학 순간부터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대학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여러 특수목적 사업들을 없애고 대학혁신지원 사업이라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큰 방향은 옳바르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당 약 40억원씩 지급되는 지금 수준의 지원으로 대학교육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겠는가? 지금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훨씬 더 강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대학교육 위기는 단순히 일부 대학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학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대학 지원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신문

학문과 대학이 붕괴되고 있다...지배당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김종영 | 승인 2022.08.31 09:13 | 댓글 0

『학문의 주먹』 연재를 시작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학과 학문, 교육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육'은 없었고, 교육부총리는 현재 공석이다. 반도체 인력양성부터 지방대 시대 선언, 만 5세 입학 등 어설픈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대국가는 지식국가이다.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학과 학문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만큼 대학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도 없다. 대학과 학문, 교육에 대한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 필요한 때다.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쓰고, 『지식과 권력』 3부작을 내놓았던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가 도발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학문의 주먹' 연재를 시작한다. 학문과 정책(정치)의 연결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서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낮다.

지방 사립대는 더욱 그렇다.

지방의 위기

생산연령인구 감소 (2017년 대비 2047년)



출처: 통계청, 2019: 15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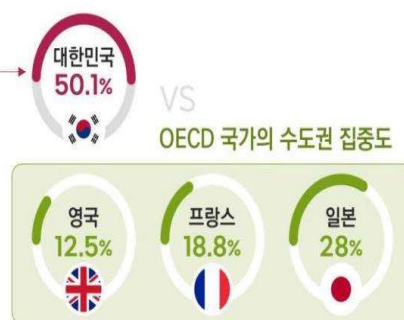


출처: 감사원, 2021

수도권 인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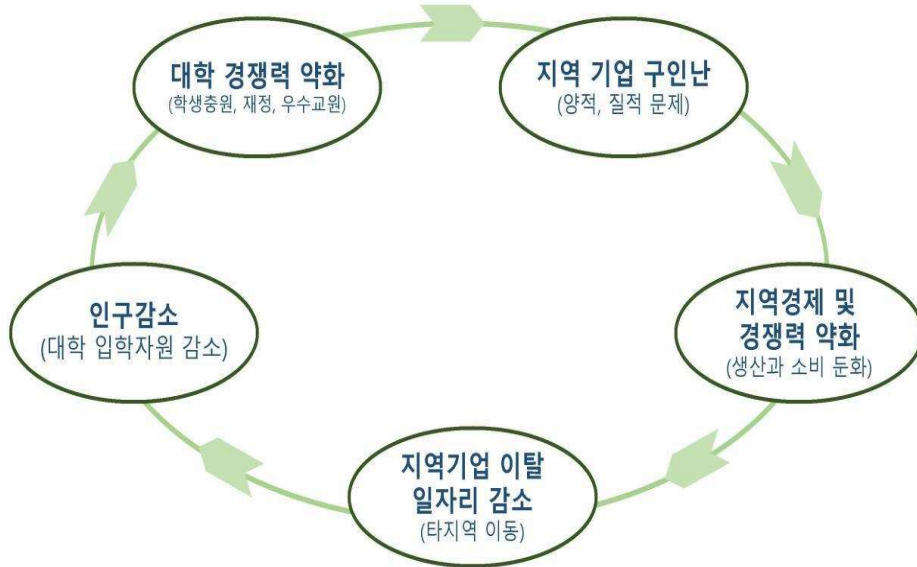


출처: 감사원(2021: 9)



출처: KEDI 182차 교육정책 포럼 (조옥경, 2022. 6. 16.)

지역과 지방대학의 악순환



세종시 및 충청권 현황 : 인구

(2023년 12월 기준)

지역	인구(명)	비율(%)
세종	386,525	7.48
대전	1,442,216	27.92
충남	2,129,591	41.22
충북	1,594,038	30.86
합계	5,165,845	100



	세종시 인구 (%)	비율(%)	대전시 인구 (명)	비율(%)	세종시/대전시	대전시/세종시
총 인구수	386,525		1,442,216			
0~4세	17,223	4.456	39,731	2.755	1.617	0.618
5~9세	26,318	6.809	56,996	3.952	1.723	0.580
10~14세	27,898	7.218	67,343	4.669	1.546	0.647
15~19세	22,838	5.909	70,493	4.888	1.209	0.827
20~24세	17,657	4.568	91,081	6.315	0.723	1.382
25~29세	20,153	5.214	108,147	7.499	0.695	1.438
30~34세	27,376	7.083	99,622	6.908	1.025	0.975
35~39세	31,964	8.270	88,343	6.126	1.350	0.741
40~44세	41,770	10.807	110,187	7.640	1.414	0.707
45~49세	35,413	9.162	109,944	7.623	1.202	0.832
50~54세	31,378	8.118	128,531	8.912	0.911	1.098
55~59세	23,055	5.965	114,727	7.955	0.750	1.334
60~64세	20,922	5.413	112,315	7.788	0.695	1.439
65~69세	16,311	4.220	89,711	6.220	0.678	1.474
70~74세	9,916	2.565	57,611	3.995	0.642	1.557
75~79세	6,562	1.698	41,529	2.880	0.590	1.696
80~84세	5,160	1.335	31,708	2.199	0.607	1.647
85~89세	3,074	0.795	16,865	1.169	0.680	1.470
90~94세	1,222	0.316	5,855	0.406	0.779	1.284
95~99세	272	0.070	1,266	0.088	0.802	1.247
100세 이상	36	0.009	211	0.015	0.637	1.571

세종시 및 충청권 현황 : 일반대학 입학정원

● 세종

대학명	입학정원(명)
고려대학교(세종) _분교	1,449
대전가톨릭대학교	40
홍익대학교 _제2캠퍼스	1,299
합 계	2,788

● 대전

대학명	입학정원(명)
건양대학교 _제2캠퍼스	866
대전대학교	1,857
대전신학대학교	32
목원대학교	1,815
배재대학교	1,845
우송대학교	2,004
을지대학교	40
충남대학교	3,584
한국과학기술원	97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4
한남대학교	2,715
한밭대학교	1,886
합 계	17,878

● 충남

대학명	입학정원(명)
건양대학교	757
공주교육대학교	354
공주대학교	2,815
금강대학교	110
나사렛대학교	1,211
남서울대학교	2,187
단국대학교 _제2캠퍼스	2,355
백석대학교	2,890
상명대학교 _제2캠퍼스	1,367
선문대학교	2,053
순천향대학교	2,352
충부대학교	1,760
청운대학교	1,1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40
한서대학교	1,569
호서대학교	2,881
합 계	26,770

● 충북

대학명	입학정원(명)
가톨릭꽃동네대학교	108
건국대학교(글로벌) _분교	1,569
극동대학교	888
서원대학교	1,622
세명대학교	1,603
유원대학교	875
중원대학교	812
청주교육대학교	286
청주대학교	2,652
충북대학교	2,806
한국교원대학교	546
한국교통대학교	1,911
합 계	15,678

세종시 및 충청권 현황 : 전문대학 입학정원

● 세종

대학명	입학정원(명)
한국영상대학교	1,449
합 계	1,449

● 대전

대학명	입학정원(명)
대덕대학교	1,224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502
대전보건대학교	1,584
우송정보대학	1,556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45
합 계	6,211

● 충남

대학명	입학정원(명)
백석문화대학교	1,496
신성대학교	1,180
아주자동차대학교	410
연암대학교	483
충남도립대학교	456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200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105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180
혜전대학교	882
합 계	5,392

●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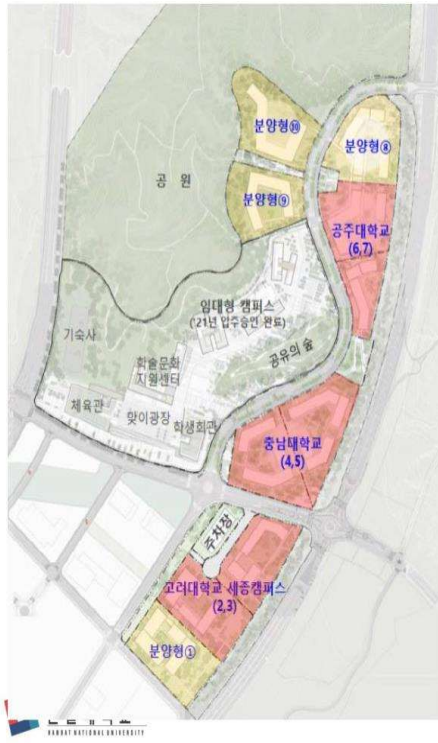
대학명	입학정원(명)
강동대학교	1,201
대원대학교	757
충북도립대학교	40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988
충청대학교	1,414
한국폴리텍 IV 대학 청주캠퍼스	295
합 계	5,055

세종시 및 충청권 현황 : 인구와 대학 입학정원

	지역별 인구 (명)	충청권 인구비율 (%)	4년제 대학입학정원 (명)	대학정원 비율 (%)	전문대 대학입학정원 (명)	대학정원 비율 (%)
세종	386,525	7.48	2,788	4.62	1,096	6.58
대전	1,442,216	27.92	17,878	29.64	6,211	37.29
충남	2,129,591	41.22	26,770	44.38	5,392	32.37
충북	1,594,038	30.86	15,678	25.99	5,055	30.35
합계	5,165,845	100	60,326	100	16,658	100

세종시는 인구에 비해 대학이 부족하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 분양형 캠퍼스

대학	구분	학과	편제정원(명)	비고
충남대	학부	AI 및 ICT 관련 3개학과	592	26년 개교
	대학원	AI 및 ICT 관련 6개학과	208	
공주대	학부	AI 및 ICT 관련 4개학과	516	26년 개교
	대학원	AI 및 ICT 관련 4개학과	83	
고려대	학부	AI 및 ICT 관련 5개학과	660	29년 개교
	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130	
합계	학부		1,768	
	대학원		421	

● 임대형 캠퍼스 (24년 입주)

대학	구분	학과	편제정원(명)	비고
한밭대	학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160	'22년 신설
		빅데이터융합전공	30	3,4학년 심화전공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10	
충남대	학부	의예과	220	1,2학년
	대학원	의학과	110	1학년
충북대	학부	의과학과	70	석/박사
	대학원	수의학과	92	3,4학년
서울대	대학원	수의학과	58	석/박사
		국가정책행정협동과정	72	'24년 신설
합계	학부		170	석/박사
	대학원		612	
합계	학부		380	
	대학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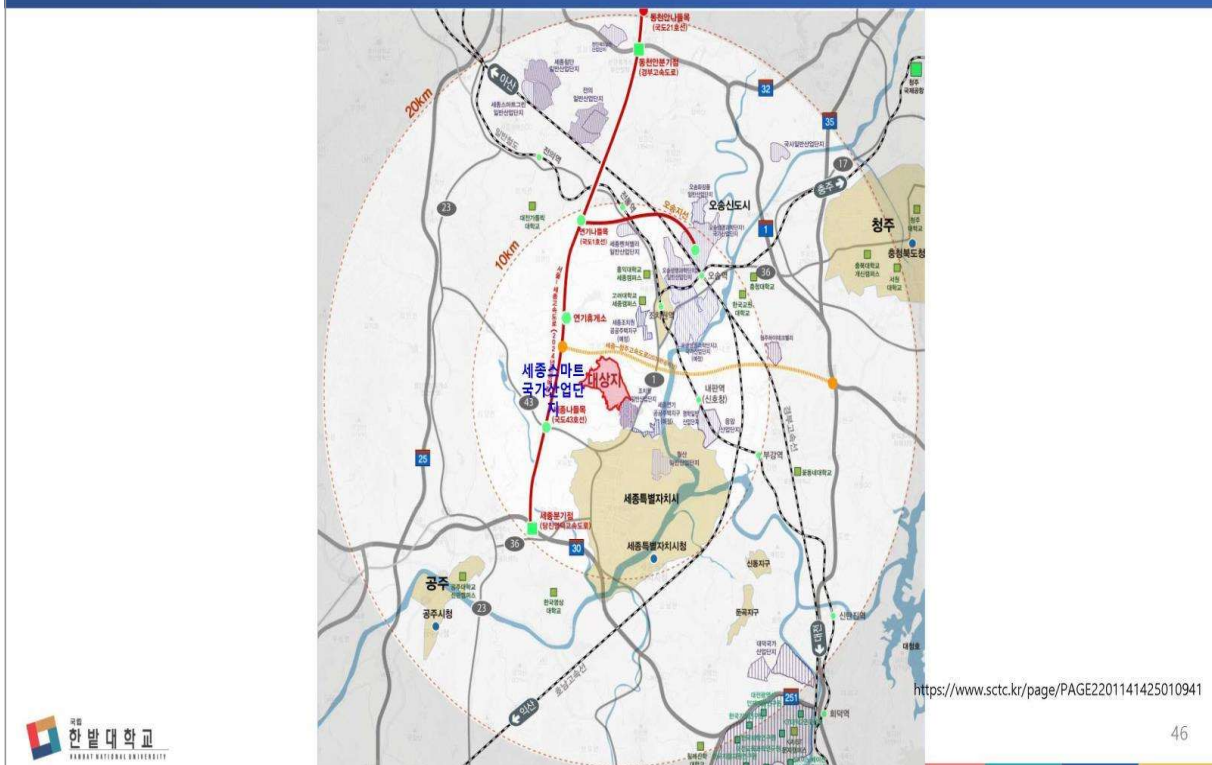
공동캠퍼스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4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2019)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2023)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

스탠퍼드 연구단지 주변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미국 North Carolina Research Triangle Park (RTP)

동아일보

동아닷컴 | 사회

하나된 産-學-政, 버려진 담배밭을 R&D요람으로

입력 2009-12-07 03:00 | 업데이트 2009-12-07 03:22

대학 3곳과 기업, 주정부의 유기적
파트너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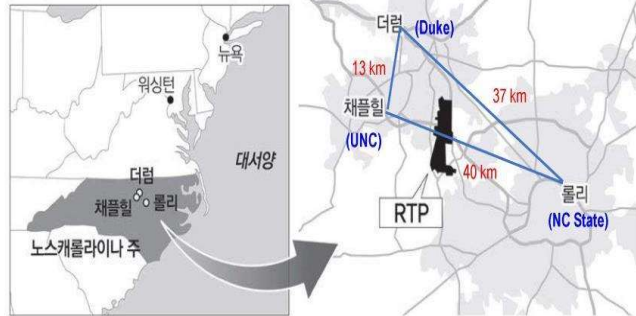
지역인구 (약 82만명)

- Raleigh 47 만명
- Durham 29만명
- Chapel Hill 6.2 만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91207/24623305/1>



RTP(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개요



- 위치: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더럼-채플힐 3개 도시로 둘러싸인 삼각지역
- 면적: 28.3km²(남북 13km, 동서 최대 폭 3.2km)
- 입주기업 및 연구소: IBM,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시스코, 노텔, 피델리티투자 등 170개 → 220개 (스타트업 65개 포함)
- 주요 대학: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플힐 캠퍼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
- 고용인원: 5만2000명(계약직 1만 명 포함)
- 직원 평균연봉: 5만6000달러
- 연간 총투자액: 28억 달러(3조2200억 원)
- 주요 연구개발 성과: 바코드,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76, 3차원 초음파기술, 항암제 텍셀, AIDS 치료제 아지도티미딘(AZT), 애스트로터프(인조잔디) 등

● 설립 1959년

49

핀란드 Aalto 대학교

기획4. 에스포시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바꾼 핀란드 알토대의 혁신

※ 촬영실 기자 | © 승인 2018.10.18 10:12

국내외 기획취재/ 지역과 대학, '유니버시티'로 상생의 길을 걷다4



50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産學 협력

-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교육체제 개편, 산학협력 제도 도입)
-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지도
-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용장비 구축
- 지역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HUNIC) 1단계	2004. 9. ~ 2009. 6.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HUNIC) 2단계	2009. 7. ~ 2012. 2.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1단계	2012. 4. ~ 2017. 2.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2단계	2017. 3. ~ 2022. 2.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3.0) 3단계	2022. 3. ~ 2027. 2.

産·學 협력에서 地·産·學 협력으로

핀란드 사례

한국경제

사회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 뜬 비결은... 産·學·政 찰떡궁합"

김동운 기자 ☆

입력 2018.05.17:32 수정 2018.06.06 02:30 지면 A24

가까

☆ ↗ 🗨️ 😊 📄

김태현 aSIST총장·세리스토 알토대 부총장 대담

노키아를 위기 몰린 핀란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활

대학에 높은 자율성 줘
새 교육패러다임 펼치는
'핀란드식 교육' 본받아야



한누 세리스토 알토대 부총장(오른쪽)과 김태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aSIST) 총장이 핀란드와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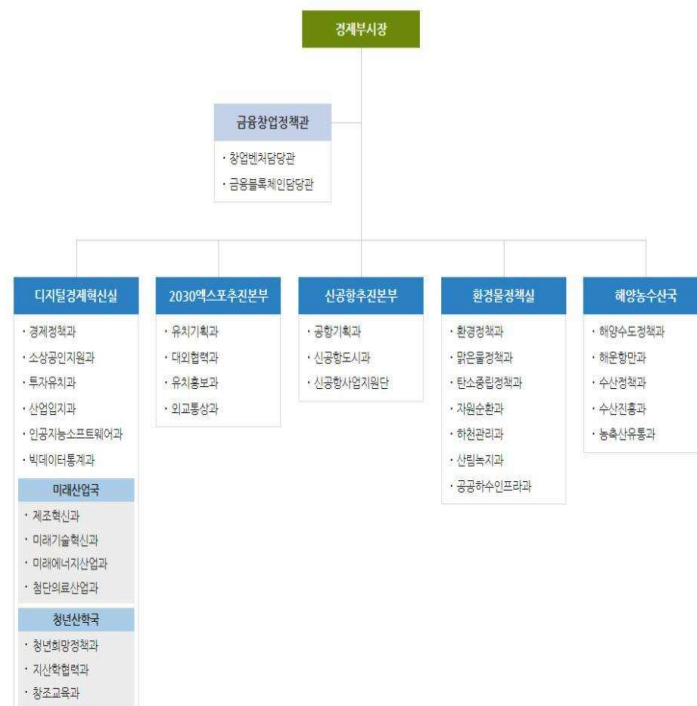
북유럽의 강소국으로 이름을 떨치던 핀란드는 한때 노키아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창업 열기가 뜨겁다. 헬싱키에 있는 알토대는 핀란드 정부가 산학협력 강화와 융합교육을 위해 헬싱키경제대·헬싱키디자인예술대·헬싱키공대 등 3개 대학을 통합해 만든 실험적인 학교다. 한국과는 1995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aSIST)와 EMBA 과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EMBA 동문행사 참석차 한국을 찾은 한누 세리스토 알토대 부총장이 지난 4일 김태현 aSIST 총장과 '핀란드와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産學 협력 → 地産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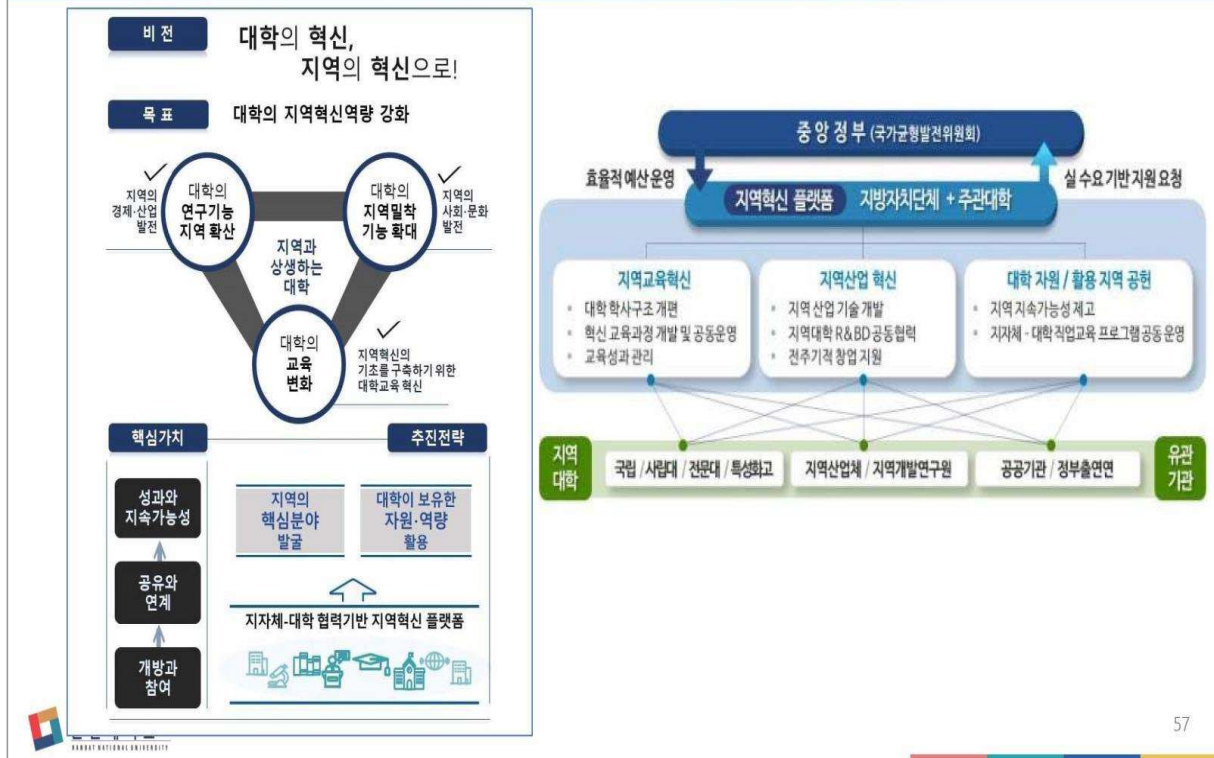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조직도 일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5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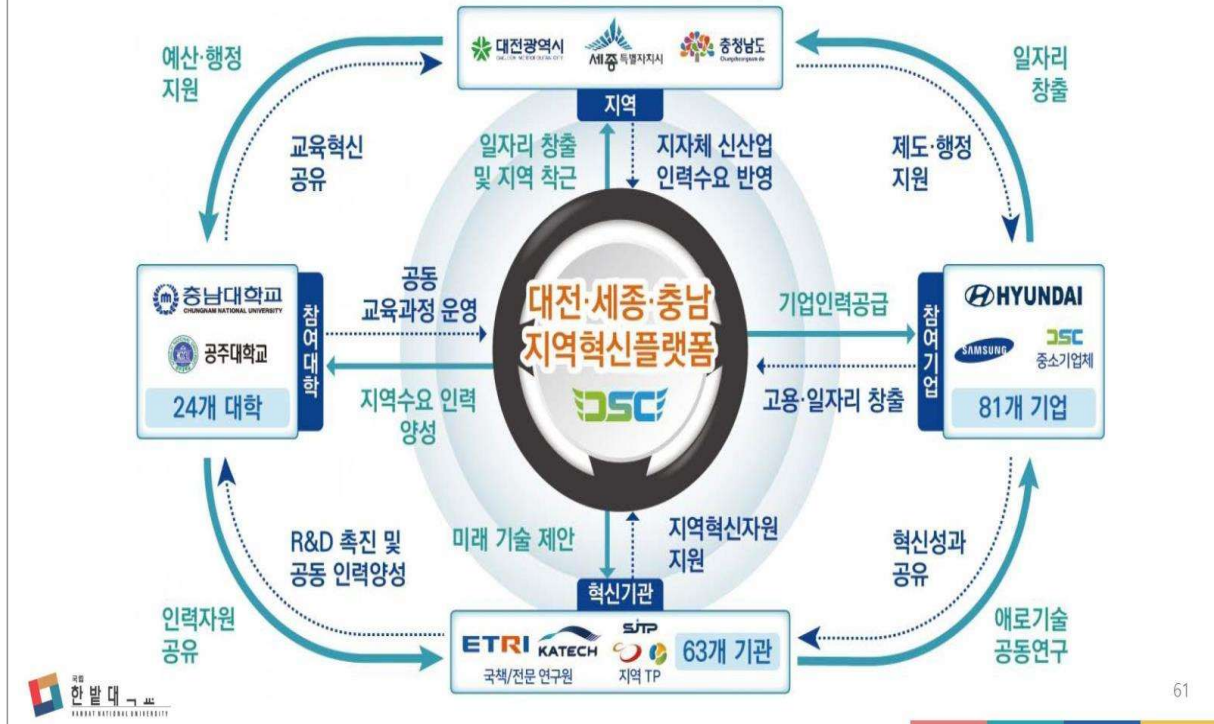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지자체	선정년도	핵심분야	대학	지역혁신기관	국비지원
광주·전남	2020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	49개	480억
울산·경남	2020	■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 미래모빌리티 ■ 스마트제조 ICT ■ 저탄소그린에너지 ■ 스마트공동체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	41개	480억
충북	2020	■ 제약바이오 ■ 화장품·천연물 ■ 정밀의료·기기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	48개	300억
대전·세종·충남	2021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ICT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	68개	480억
강원	2022	■ 정밀의료 ■ 스마트수소에너지 ■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대(총괄), 연세대 미래(중심), 강릉원주대(중심) 등 15개 대학	60개	300억
대구·경북	2022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융합부품	경북대(총괄), 영남대(중심) 등 23개 대학	214개	400억
부산	2023	■ 스마트 항만물류 ■ 친환경스마트 선박 ■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부산대(총괄), 한국해양대(중심), 동아대(중심) 등 21개 대학	81개	300억
전북	2023	■ 미래 수송기기 ■ 에너지신산업 ■ 농생명·바이오	전북대(총괄), 군산대(중심), 원광대(중심) 등 9개 대학	106개	300억
제주	2023	■ 청정바이오 ■ 그린에너지 ■ 미래 모빌리티 ■ 지능형 서비스	제주대(총괄) 등 4개 대학	18개	300억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RIS)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RIS)



61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RIS)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구축”



6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라이즈(RISE)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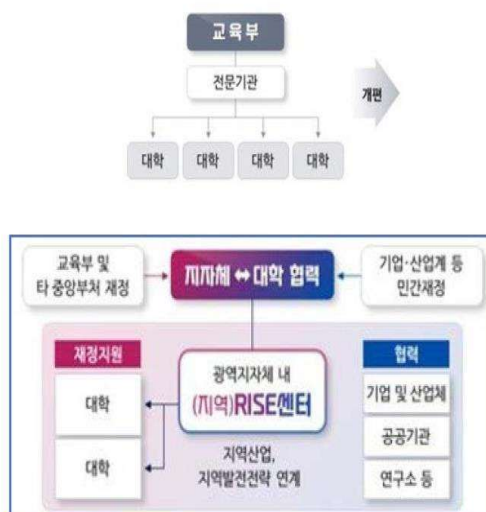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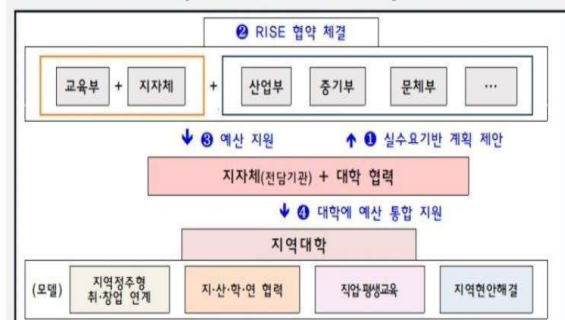
6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 [참고] 기존 대학지원 추진 방식



*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대학지원 조직 체계(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자료: 교육부

재정지원

- ▶ 교육부 대학예산 50% 지자체 전환(2025년)

지역대학

- ▶ 비수도권 글로벌 대학 30곳 육성(2027년)

규제·권한

-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2023~2024년)

추진체계

- ▶ 시도 지원 전담부서·지역고등교육협의회

자료: 교육부

RIS와 RISE 사업의 차이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목표	첨단분야 중심의 지역 인재 양성	지역발전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영역	지역혁신, 산학협력,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지역발전-대학혁신 연계 전분야	첨단분야 중심 지역인재양성
대상	비수도권(광역단체 단일 또는 복수형 플랫폼)	전국 광역자치단체(필요 시 시도 간 연계 협력사업 가능)
지원 규모	단일형 국고 300억원, 복수형 국고 480억원 고정	시도별 차등 지원 (지역별 학생대학 수와 RISE 계획의 타당성 등 고려)
지자체 역할	핵심분야 선정과 사업비 매칭, 사업 공동관리 등	사업 총괄 및 기획, 자체 성과 평가 (RISE 센터를 통한 예산 배분, 집행, 선정, 관리)
사업 집행관리	총괄 대학 소속 총괄운영센터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RISE센터)
심의 기구	지역협업위원회	지역고등교육위원회(신설 예정)

출처: 교육부

RISE 시범지역 선정 (2023. 3.)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 투자계획 제시 전담조직-전담기관-협의체 간 명확한 역할 제시 기업 등 산업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대학지원 전략 제시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제시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연계 대학특성화,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마련, 글로벌 인재 육성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전문대학-대학-평생교육의 연계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력산업 연구 특성화 대학 /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 지역정주기반 평생교육체계 구축 제안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원 과제 수립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확대 추진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대학 지정·운영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거점 글로벌 대학 및 정주형 특성화 대학 육성 열린대학 중심 융합인재육성 4대 프로젝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풀 인재양성 / D-Brain 산업전환 / 현장밀착 기업혁신 / 지역혁신 열린대학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즈 체계를 통한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 제안 지역정착형 Local-취·창업 우수대학 육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옹거대학 육성 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대학지원 전담부서 신설 지산학협력브랜치(52개소) 운영 부산형 지역대학지원 및 인재양성 체계 제안 	

‘글로벌 대학 30’ 추진방안

담대한 비전과 목표하에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선정·육성

■ 목표

1. 대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은 **국제사회와 연결**
2.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
3. 불확실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과 내외 육성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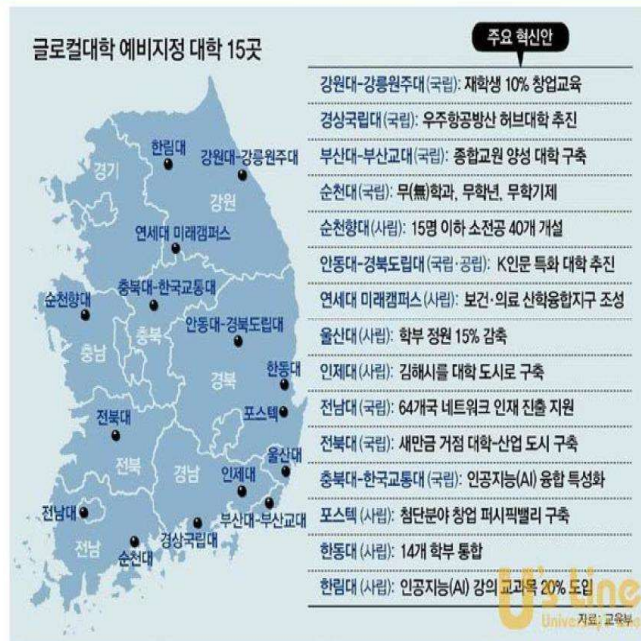
1. **[대학외부] 지원전략 혁신**
 - ‘선택과 집중’ 전략
 -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 범부처, 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 스마트한 선정 및 성과관리
2. **[대학내부] 대학구조·운영 혁신**
 - 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예비지정 시 평가 기준(안)】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제시한 혁신 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혁신을 위한 걸림돌(저해요소)을 분석하고,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규제혁신 등)이 제시되었는가?
성과 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영향력(Impact) 평가 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 등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이 명확하여 실행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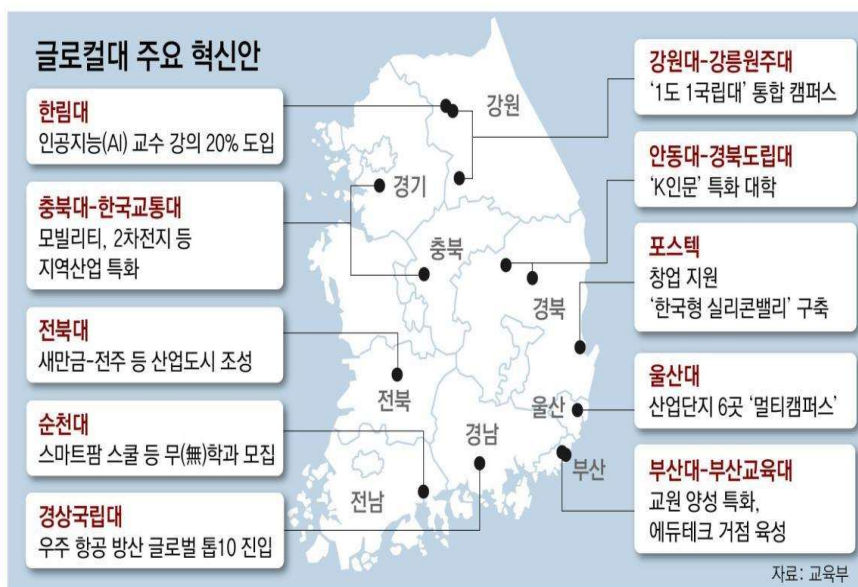
※ RISE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 검토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선정 (2023.6.)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dxno=23680>

글로벌 대학 10곳 선정 (2023. 11.)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 기반 (국립)대학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다.

RISE와 ‘글로벌 대학 30’이 성공하려면...

-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와 전문성 확보
- 세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전 준비
- 충분한 재정지원 및 사업기간 확보
-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산업계, 대학)
- 제도적 지원 및 규제완화

국립대학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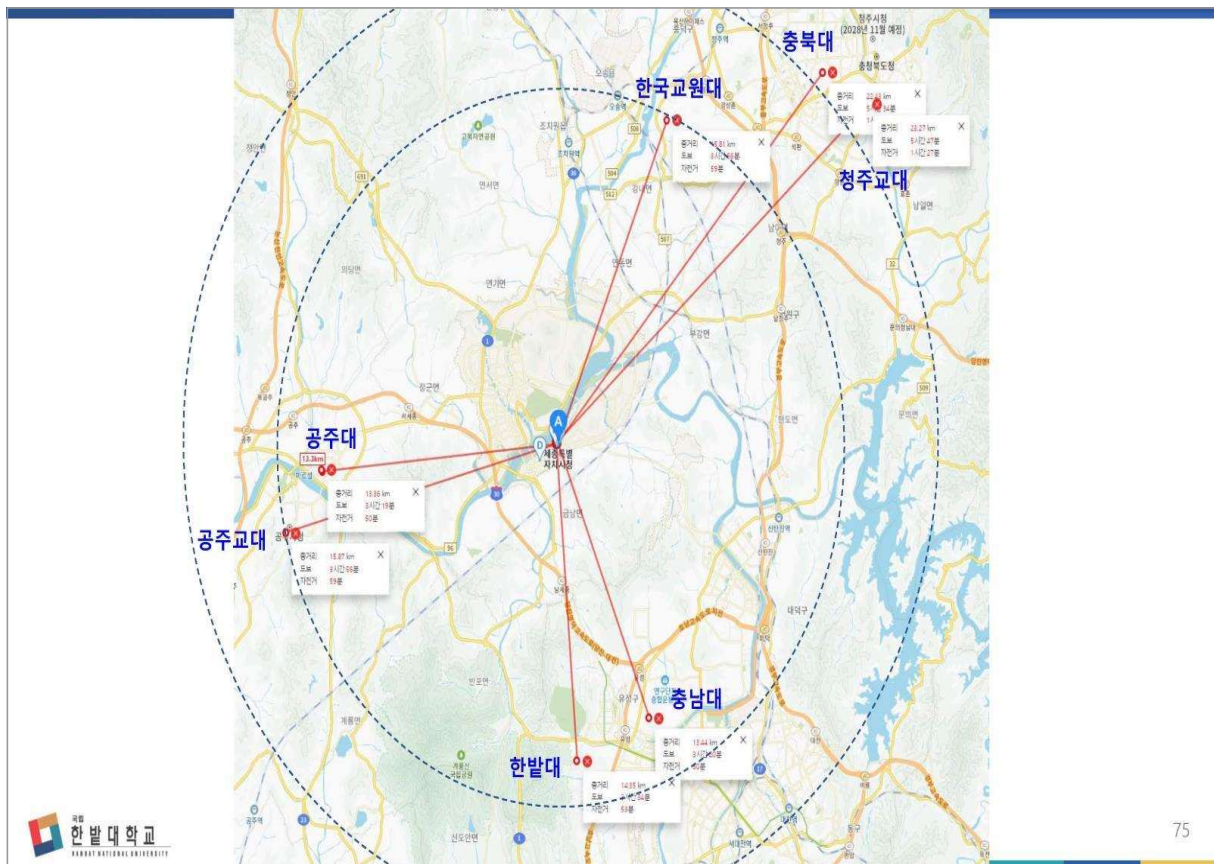


73

충청권 국립대학



74



75

세종 국립대학의 설립 방안

- 국립대학 신설
- 지역 국립대학 재배치
- 국립충청대학교 체계 구축

76

세종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영 차장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꾸다

77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소멸 막을 유일한 대안

3대 개혁을 말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소멸 막을 유일한 대안

입력 2023.07.03 04:30 | 25면



캘리포니아대학체제와 국가거점국립대학 예산 비교 (2020년 기준)

	국가거점국립대학 10개 (서울대 포함)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10개 대학
예산	5조 7,031억 원	54조 80억 원(416억 달러)
교원 수	1만 653명	2만 4,400명
학부생	22만 2,757명	22만 6,449명
대학원	5만 1,437명	5만 9,413명
노벨상 수상자	0명	64명

세종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

2022년 세계대학랭킹 ARWU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국가거점국립대학 10개

98위 서울대
401-500위 경북대
501-600위 부산대, 전남대
701-800위 충남대, 전북대
801-900위 경상대
901-1000위 충북대, 강원대
 순위 밖 제주대



캘리포니아대학 10개

5위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13위 캘리포니아대학-로스앤젤레스
19위 캘리포니아대학-샌프란시스코
21위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
57위 캘리포니아대학-산타바바라
61위 캘리포니아대학-어바인
101-150위 캘리포니아대학-데이비스
151-200위 캘리포니아대학-산타크루즈
201-300위 캘리포니아대학-리버사이드
401-500위 캘리포니아대학-머세드

세종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

K-Pop

K-Tech

K-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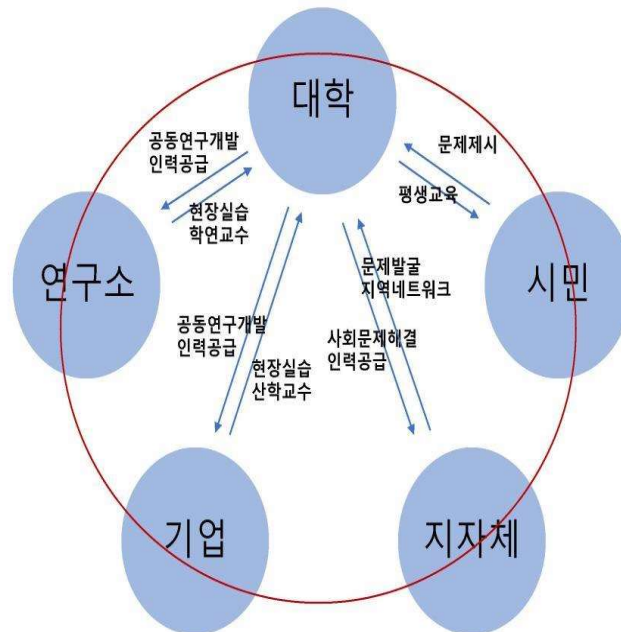
K-Science

K-Culture

K-Edu

K-Contents

지산학협력 = 민산학연관 협력



감사합니다!

최영욱

choi@hanbat.ac.kr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02

토 론 문

김 강 산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 모델

<김강산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 <https://litt.ly/kimkangsan>>

‘참여하는 시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가치 아래, 세종교육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 조치원중학교에 입학해, 17년에 졸업하고, 17년부터 20년까지 바로 옆에 있는 세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 모델은 「**대학 서열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은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을 운영해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입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역사 연구가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인지도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당시 2018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는 “강산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라고 조언하신 것에서 출발해, 19년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과 관련된 명언 중 역사 선생님이신 최태성 선생님의 “꿈은 변호사 같은 명사보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꾸는 변호사같이 동사여야 한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편리하고 이동 자체를 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교통전문가’라는 꿈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동사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국가철도공단,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토교통부까지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을 해오며, 최근 YTN 아침 생방송 뉴스 인터뷰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세상을 바꾼 교통박사 김강산’으로 불리는 등 교통 분야에서 진짜 박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교통전문가 세종청년 김강산으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 모델인 「청년 주체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능력과 가능성 위주의 대학 서열주의를 뛰어넘은 모델」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첫째,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으로의 대학 서열주의 타파**입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처럼 지역명이 들어가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불러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올해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충격적인 광경은 SKY 대학에 몇 명 갔는지 국공립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는지 자랑하는 현수막이 머릿속에서 생생히 기억납니다. 현수막과 언론에서 한솔고에서 몇 명, 과학예술영재고에서 몇 명, 세종고에서 몇 명 서울대를 보냈는지 같은 세종시 안에서도 경쟁을 부추깁니다. 가령 세종시 모 언론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8년, “서울대 41,

연세대 64, 고려대 67명.. 이 숫자는?’이라는 헤드라인으로 SKY 대학에 무려 172명이 합격한 수시 대학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청년이 되는 청소년이 보기에는 어른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제로 해온 활동보다는 서울대라는 대학교 이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사회의 인식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24년은 저처럼 01년생 즉, 21세기 미래세대가 대학교를 졸업해, 사회로 진출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서열주의는 우리 세대에서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충남대, 부산대처럼 지역명이 들어간 국립대학교 이름을 가칭 국립 1대학, 2대학처럼 숫자가 들어가, 대학 간에 서열이 없는 체계로 대학 시스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이 학교 이름으로 위축되게끔 하는 지금 시대와 이제 작별을 고하며, 청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학 커리큘럼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론 수업을 듣고, 4학년부터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로 4학년이 돼서야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좋아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하는 구조로 관성처럼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2학년이 돼, 진짜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과를 옮기는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부처 칸막이처럼 가로막힌 과 시스템과 뒤늦은 학생 주체적 프로젝트 시스템은 학생 스스로가 생각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가치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라면 제가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 교통 분야에서 비유하자면 다른 도시들은 일반 자가용과 버스가 같은 도로를 달려 정시성이 엉망인 교통 시스템이었다면 우리 세종시는 도시 설계 단계부터 BRT 전용 고가차도와 지하차도가 갖춰진 고급 S-BRT를 도입하며 교통 분야에서 초격차를 벌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청년 주체적 커리큘럼으로의 학생 시절부터 사회에 참여해, 누가 시키지 않은 청년 주체적 시민으로 길러 초격차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학년부터 학생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프로젝트에서는 분량 제한 없이 학생 스스로 좋아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때, 학생의 생각이 정책이 돼 세상을 바꾸었다면 이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등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길러냅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세종시 소재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초등학교 6,175곳 (분교장 제외) 가운데 전교생이 30명 이

하인 초등학교는 584곳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9.5%였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전체의 6.3% 정도였던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그 비중을 해마다 가파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512곳(8.3%)이었는데 1년 만에 72곳이나 늘었습니다. 당장 우리 2023 세종시청년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생률은 1.12명으로 전국 0.78명에 비해 0.34명 많으나, 19년에는 1.47명이었으니, 세종시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한 국공립대학교 유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행정구역에 매몰되지 않고, 기존 대학의 일부 단과대 이전이나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특화를 노리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활용해 국공립대학교를 유치합니다. 때마침 올 하반기면 충청권 초광역의회가 탄생합니다. 초광역의회처럼 국공립대학도 행정구역이라는 구분을 타파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로 첫째 과제였던, 대학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국공립대학교 명칭 변경이 선행된 후, 세 번째 과제에서는 가칭 국립17대학을 세종에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22살 세종청년 김강산이 꿈꾸는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 모델은 ‘대학 서열주의를 타파하는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으로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은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세종시 소재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학의 모습입니다.

03

토 론 문

상 병 헌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유치 현황과 추진 전략

- 국립대 설치를 중심으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

I.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

- 세종시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건설되는 도시로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 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학 기능’이 반영되어 있으며,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리) 대학캠퍼스 부지에 입주대학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음.



〈자료: 충북일보〉

- 2016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을 명시한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부지는 단독 캠퍼스(71만㎡)와 공동캠퍼스(60만㎡)로 조성

① 단독캠퍼스 유치 추진 개요

- ▶ (추진 목적) 대학, 연구,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상업, 주거, 문화 등이 융합된 신개념 캠퍼스타운 조성 목적
- ▶ (추진 현황)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개별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단독캠퍼스에 입주할 가능성 축소, 기존의 대학 자력 입주 종합 대학 유치 모델 외 대안적인 대학 유치모델 모색 중
- ▶ (추진 현황) 대학 유치에 따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 및 효율적인 대학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 및 방안, 자원 확보 모색 중

② 공동캠퍼스 추진 개요

- ▶ ('19.10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 ('20.9~'21.2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1차 모집공고, 선정 및 승인
※ (임대형) 서울대(행정·정책대학원), KDI(행정·정책대학원), 충남대(의대·대학원), 충북대(수의대·대학원), 한밭대(AI·ICT·대학원) (분양형) 충남대(AI·ICT·대학원), 공주대(AI·ICT·대학원)
- ▶ ('21.10월, '22.8월) 공동캠퍼스 유치 설명회 개최(2회)
- ▶ ('22.9~'23.2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2차 모집공고, 선정 및 승인
- ▶ ('24.3월) 개교목표

II.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유치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p><u>〈행정수도 및 복합기능 특화 인재양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 확충 및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 인재육성 가능 ▶ 국회세종지사당 및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한 연구 교육 기능 활성화 가능 	<p><u>〈권한 및 재정상황 악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부지에 대한 권한을 행복청이 보유, 대학이 요구하는 과감한 재정지원은 시 재정 상황 고려시 어려운 상황
Opportunities	Treats
<p><u>〈기술 및 인프라 구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전략도시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대학유치 잠재력 보유 ▶ 새로운 도시모델(스마트시티) 제시 및 신기술 TEST-BED 역할 수행 가능 ▶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대학의 지역정착 유도 가능 	<p><u>〈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지원 요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정원 미달 사례 발생 및 대학 재정위기 우려 증가 ▶ 대학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

Ⅲ.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대 유치

1.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 전략 필요

- 학령인구 급감 및 수도권 선호에 따른 지방대 위기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세종시가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임.
- 지역의 산업구조 및 발전방향과 연계한 대학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자족 기능 확충에 필요한 역할을 대학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대 유치 필요성 증대

- 전국 16개 시도별 최소 1개의 국립대학교가 있으나, 세종시는 국립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도)로써 ‘행정수도=세종시’ 위상에 맞는 대학 유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1년도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세종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민 10명 중 4명은 공동캠퍼스에 ‘국립대 유치’를 희망. (응답자의 37.6%)

3. 국립대 유치 방안 1)

1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2020년도, 세종시는 ‘지역중심대학의 연합 및 통폐합’ 논의를 추진한 적 있으며, 세종시 인근 지역 중심 대학(공주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한국교원대)의 통폐합 유치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특히 통폐합 후 각 대학의 특수성과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특화 캠퍼스 개별 운영이 가능하며, 나아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고등교육기관 유치 및 산업배후 형성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가치와 의지가 높다고 판단함.

2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세종시와 대학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지역 산업 연계에 유리하며, 대학 신설 유형으로 지역간 갈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설 국립대 설립의 경우 대학 정원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교육부 인가 어려움 등의 요소들이 존재함으로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2021)

IV. '세종시립대 설치안'에 대한 비판

- 최근 지역인재 육성 및 역외 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철학을 투영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대학 설치 등의 이유 등을 근거로 세종시립대 설립 제안 의견이 있음.
- 시립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로 한 '토지, 건물,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세종시 자체 예산안에서 부담해야 함.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시급한 주요 시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따라서 추진가능성 및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시립대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V. 추진 전략

대전 한밭대학교 세종시 이전(안)

- 대전 한밭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세종시의 행복도시 완성에도 기여하고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학의 상황을 대처하기에도 적합하며 미래국가성장을 주도하는 혁신형 국립대로의 성장·전환 가능성이 높음.
-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정수도 대학을 건립하고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미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한밭대'의 특성을 살려 산업과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현장감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대.

04

토 론 문

유 우 석

“특별자치”에 걸맞는 세종교육

해밀초등학교 교장 유우석

1. 매력적인 도시 세종 그리고 세종교육

꼭 10년 전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 공약 중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당선 후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었고, 우연찮은 기회에 정책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와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애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종은 교육에 있어서도 자치 분권의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그 의미를 담고 있기에 기꺼이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가벼운 자리였지만 그날 이후 생각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자각과 함께 ‘내가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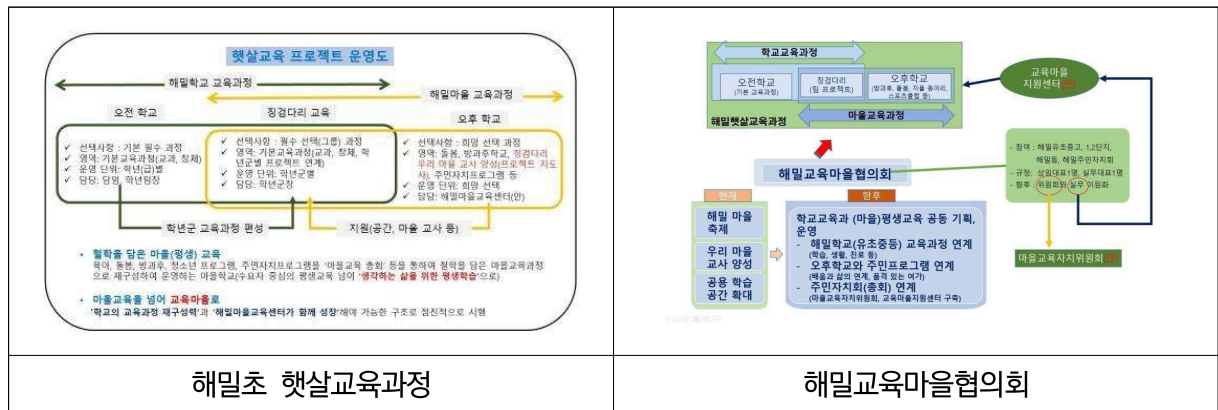
이 매력적인 도시, 세종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해 동료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해밀초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밀은 수많은 영감을 주는 학교입니다. 새로운 공간과 교육과정에 관심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적어도 300팀 이상 2,000여명은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한 바퀴 돌아온 후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이가 ‘쉬는 시간’을 꼽습니다.

1,2교시 후에 30분 중간놀이와 1시간 이상 운영되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은 학교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운동장은 물론이며, 계단 밑에도, 학교 뒤편에도, 교장실에도 옵니다. 쉬는 시간을 본 사람들은 해밀의 진짜 매력은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 있는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업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업 못지않게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하는 시간만큼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즉 ‘여가’를 잘 보내는 일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업 이후 활동, 즉 방과후 활동과 방학 중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수업 이후에, 방학 중에도 학기의 연장선으로 못다 한 공부를 더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찾는’, ‘잘 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분절합니다.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이지만 지역은, 마을은 시민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배움이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p>“초등학생도 마을사업 제안 할 수 있어요”</p> <p>문지은 기자 승인 2022.07.23 19:58 댓글 0</p> <p>초등학교부터 마을에서 경험하는 주민자치, “주변 살파 개선사항 없는지 생각해요” 송기훈 ‘그늘막설치’ 신다현 ‘길 안내 표지판’ 해밀동 마을계획사업 1·2순위 선정</p> <p>주민 총회에 참여한 초등학생</p>	<p>세종시, 시민이 제안하고 만든 '해밀마을 지도 표지판'</p> <p>충청 입력 2023.12.18 15:39</p> <p>주민 총회 제안이 통과되어 설치된 안전</p>
<p>주민 총회에 참여한 초등학생</p>	<p>주민 총회 제안이 통과되어 설치된 안전</p>

결국 도달하는 곳은 ‘자치’였습니다. 학교만이 아닌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자치를 넘어 마을교육자치, 지역교육자치라고 부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 자치’에 걸맞는 교육을 생각하는 우리, 세종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2. 개청 후, 세종교육의 성장

개청(2012. 7월)이후 10년은 세종교육은 기반 구축의 기간으로 학교 신설, 학생 배치 등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중점 둔 시기로 학교는 ▲ 2012년 57개교, 12,682명 ▲ 2018년 135개교, 45,032명 ▲2024년 165개교 66,990명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팽창을 해온 시기입니다.

① 학교 현황

(단위: 개교 3년, 입학: 명)

구분	연도별	학교수			
		2012	2013	2014	
초·중·고	유치원	23	25	30	
		-	△ 2	△ 5	
	초등학교	20	22	26	
		-	△ 2	△ 4	
	중학교	9	10	13	
		-	△ 1	△ 3	
	고등학교	일반고	4	4	5
			-	-	△ 1
		특수목적고	0	1	1
			-	△ 1	-
특성화고		1	1	1	
	-	-	-		
자립고	0	0	1		
	-	-	△ 1		
계		52	64	77	

※ 일반고: 일반 고·영 양·공

※ 유치원: 영유아 영·초·사립이 없으므로 유치원수는 2012년 2개, 2013년 2개, 2014년 2개, 2015년 2개, 2016년 2개, 2017년 2개,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2개, 2021년 2개, 2022년 2개, 2023년 2개, 2024년 2개, 2025년 2개, 2026년 2개, 2027년 2개, 2028년 2개, 2029년 2개, 2030년 2개, 2031년 2개, 2032년 2개, 2033년 2개, 2034년 2개, 2035년 2개, 2036년 2개, 2037년 2개, 2038년 2개, 2039년 2개, 2040년 2개, 2041년 2개, 2042년 2개, 2043년 2개, 2044년 2개, 2045년 2개, 2046년 2개, 2047년 2개, 2048년 2개, 2049년 2개, 2050년 2개, 2051년 2개, 2052년 2개, 2053년 2개, 2054년 2개, 2055년 2개, 2056년 2개, 2057년 2개, 2058년 2개, 2059년 2개, 2060년 2개, 2061년 2개, 2062년 2개, 2063년 2개, 2064년 2개, 2065년 2개, 2066년 2개, 2067년 2개, 2068년 2개, 2069년 2개, 2070년 2개, 2071년 2개, 2072년 2개, 2073년 2개, 2074년 2개, 2075년 2개, 2076년 2개, 2077년 2개, 2078년 2개, 2079년 2개, 2080년 2개, 2081년 2개, 2082년 2개, 2083년 2개, 2084년 2개, 2085년 2개, 2086년 2개, 2087년 2개, 2088년 2개, 2089년 2개, 2090년 2개, 2091년 2개, 2092년 2개, 2093년 2개, 2094년 2개, 2095년 2개, 2096년 2개, 2097년 2개, 2098년 2개, 2099년 2개, 2100년 2개, 2101년 2개, 2102년 2개, 2103년 2개, 2104년 2개, 2105년 2개, 2106년 2개, 2107년 2개, 2108년 2개, 2109년 2개, 2110년 2개, 2111년 2개, 2112년 2개, 2113년 2개, 2114년 2개, 2115년 2개, 2116년 2개, 2117년 2개, 2118년 2개, 2119년 2개, 2120년 2개, 2121년 2개, 2122년 2개, 2123년 2개, 2124년 2개, 2125년 2개, 2126년 2개, 2127년 2개, 2128년 2개, 2129년 2개, 2130년 2개, 2131년 2개, 2132년 2개, 2133년 2개, 2134년 2개, 2135년 2개, 2136년 2개, 2137년 2개, 2138년 2개, 2139년 2개, 2140년 2개, 2141년 2개, 2142년 2개, 2143년 2개, 2144년 2개, 2145년 2개, 2146년 2개, 2147년 2개, 2148년 2개, 2149년 2개, 2150년 2개, 2151년 2개, 2152년 2개, 2153년 2개, 2154년 2개, 2155년 2개, 2156년 2개, 2157년 2개, 2158년 2개, 2159년 2개, 2160년 2개, 2161년 2개, 2162년 2개, 2163년 2개, 2164년 2개, 2165년 2개, 2166년 2개, 2167년 2개, 2168년 2개, 2169년 2개, 2170년 2개, 2171년 2개, 2172년 2개, 2173년 2개, 2174년 2개, 2175년 2개, 2176년 2개, 2177년 2개, 2178년 2개, 2179년 2개, 2180년 2개, 2181년 2개, 2182년 2개, 2183년 2개, 2184년 2개, 2185년 2개, 2186년 2개, 2187년 2개, 2188년 2개, 2189년 2개, 2190년 2개, 2191년 2개, 2192년 2개, 2193년 2개, 2194년 2개, 2195년 2개, 2196년 2개, 2197년 2개, 2198년 2개, 2199년 2개, 2200년 2개, 2201년 2개, 2202년 2개, 2203년 2개, 2204년 2개, 2205년 2개, 2206년 2개, 2207년 2개, 2208년 2개, 2209년 2개, 2210년 2개, 2211년 2개, 2212년 2개, 2213년 2개, 2214년 2개, 2215년 2개, 2216년 2개, 2217년 2개, 2218년 2개, 2219년 2개, 2220년 2개, 2221년 2개, 2222년 2개, 2223년 2개, 2224년 2개, 2225년 2개, 2226년 2개, 2227년 2개, 2228년 2개, 2229년 2개, 2230년 2개, 2231년 2개, 2232년 2개, 2233년 2개, 2234년 2개, 2235년 2개, 2236년 2개, 2237년 2개, 2238년 2개, 2239년 2개, 2240년 2개, 2241년 2개, 2242년 2개, 2243년 2개, 2244년 2개, 2245년 2개, 2246년 2개, 2247년 2개, 2248년 2개, 2249년 2개, 2250년 2개, 2251년 2개, 2252년 2개, 2253년 2개, 2254년 2개, 2255년 2개, 2256년 2개, 2257년 2개, 2258년 2개, 2259년 2개, 2260년 2개, 2261년 2개, 2262년 2개, 2263년 2개, 2264년 2개, 2265년 2개, 2266년 2개, 2267년 2개, 2268년 2개, 2269년 2개, 2270년 2개, 2271년 2개, 2272년 2개, 2273년 2개, 2274년 2개, 2275년 2개, 2276년 2개, 2277년 2개, 2278년 2개, 2279년 2개, 2280년 2개, 2281년 2개, 2282년 2개, 2283년 2개, 2284년 2개, 2285년 2개, 2286년 2개, 2287년 2개, 2288년 2개, 2289년 2개, 2290년 2개, 2291년 2개, 2292년 2개, 2293년 2개, 2294년 2개, 2295년 2개, 2296년 2개, 2297년 2개, 2298년 2개, 2299년 2개, 2300년 2개, 2301년 2개, 2302년 2개, 2303년 2개, 2304년 2개, 2305년 2개, 2306년 2개, 2307년 2개, 2308년 2개, 2309년 2개, 2310년 2개, 2311년 2개, 2312년 2개, 2313년 2개, 2314년 2개, 2315년 2개, 2316년 2개, 2317년 2개, 2318년 2개, 2319년 2개, 2320년 2개, 2321년 2개, 2322년 2개, 2323년 2개, 2324년 2개, 2325년 2개, 2326년 2개, 2327년 2개, 2328년 2개, 2329년 2개, 2330년 2개, 2331년 2개, 2332년 2개, 2333년 2개, 2334년 2개, 2335년 2개, 2336년 2개, 2337년 2개, 2338년 2개, 2339년 2개, 2340년 2개, 2341년 2개, 2342년 2개, 2343년 2개, 2344년 2개, 2345년 2개, 2346년 2개, 2347년 2개, 2348년 2개, 2349년 2개, 2350년 2개, 2351년 2개, 2352년 2개, 2353년 2개, 2354년 2개, 2355년 2개, 2356년 2개, 2357년 2개, 2358년 2개, 2359년 2개, 2360년 2개, 2361년 2개, 2362년 2개, 2363년 2개, 2364년 2개, 2365년 2개, 2366년 2개, 2367년 2개, 2368년 2개, 2369년 2개, 2370년 2개, 2371년 2개, 2372년 2개, 2373년 2개, 2374년 2개, 2375년 2개, 2376년 2개, 2377년 2개, 2378년 2개, 2379년 2개, 2380년 2개, 2381년 2개, 2382년 2개, 2383년 2개, 2384년 2개, 2385년 2개, 2386년 2개, 2387년 2개, 2388년 2개, 2389년 2개, 2390년 2개, 2391년 2개, 2392년 2개, 2393년 2개, 2394년 2개, 2395년 2개, 2396년 2개, 2397년 2개, 2398년 2개, 2399년 2개, 2400년 2개, 2401년 2개, 2402년 2개, 2403년 2개, 2404년 2개, 2405년 2개, 2406년 2개, 2407년 2개, 2408년 2개, 2409년 2개, 2410년 2개, 2411년 2개, 2412년 2개, 2413년 2개, 2414년 2개, 2415년 2개, 2416년 2개, 2417년 2개, 2418년 2개, 2419년 2개, 2420년 2개, 2421년 2개, 2422년 2개, 2423년 2개, 2424년 2개, 2425년 2개, 2426년 2개, 2427년 2개, 2428년 2개, 2429년 2개, 2430년 2개, 2431년 2개, 2432년 2개, 2433년 2개, 2434년 2개, 2435년 2개, 2436년 2개, 2437년 2개, 2438년 2개, 2439년 2개, 2440년 2개, 2441년 2개, 2442년 2개, 2443년 2개, 2444년 2개, 2445년 2개, 2446년 2개, 2447년 2개, 2448년 2개, 2449년 2개, 2450년 2개, 2451년 2개, 2452년 2개, 2453년 2개, 2454년 2개, 2455년 2개, 2456년 2개, 2457년 2개, 2458년 2개, 2459년 2개, 2460년 2개, 2461년 2개, 2462년 2개, 2463년 2개, 2464년 2개, 2465년 2개, 2466년 2개, 2467년 2개, 2468년 2개, 2469년 2개, 2470년 2개, 2471년 2개, 2472년 2개, 2473년 2개, 2474년 2개, 2475년 2개, 2476년 2개, 2477년 2개, 2478년 2개, 2479년 2개, 2480년 2개, 2481년 2개, 2482년 2개, 2483년 2개, 2484년 2개, 2485년 2개, 2486년 2개, 2487년 2개, 2488년 2개, 2489년 2개, 2490년 2개, 2491년 2개, 2492년 2개, 2493년 2개, 2494년 2개, 2495년 2개, 2496년 2개, 2497년 2개, 2498년 2개, 2499년 2개, 2500년 2개, 2501년 2개, 2502년 2개, 2503년 2개, 2504년 2개, 2505년 2개, 2506년 2개, 2507년 2개, 2508년 2개, 2509년 2개, 2510년 2개, 2511년 2개, 2512년 2개, 2513년 2개, 2514년 2개, 2515년 2개, 2516년 2개, 2517년 2개, 2518년 2개, 2519년 2개, 2520년 2개, 2521년 2개, 2522년 2개, 2523년 2개, 2524년 2개, 2525년 2개, 2526년 2개, 2527년 2개, 2528년 2개, 2529년 2개, 2530년 2개, 2531년 2개, 2532년 2개, 2533년 2개, 2534년 2개, 2535년 2개, 2536년 2개, 2537년 2개, 2538년 2개, 2539년 2개, 2540년 2개, 2541년 2개, 2542년 2개, 2543년 2개, 2544년 2개, 2545년 2개, 2546년 2개, 2547년 2개, 2548년 2개, 2549년 2개, 2550년 2개, 2551년 2개, 2552년 2개, 2553년 2개, 2554년 2개, 2555년 2개, 2556년 2개, 2557년 2개, 2558년 2개, 2559년 2개, 2560년 2개, 2561년 2개, 2562년 2개, 2563년 2개, 2564년 2개, 2565년 2개, 2566년 2개, 2567년 2개, 2568년 2개, 2569년 2개, 2570년 2개, 2571년 2개, 2572년 2개, 2573년 2개, 2574년 2개, 2575년 2개, 2576년 2개, 2577년 2개, 2578년 2개, 2579년 2개, 2580년 2개, 2581년 2개, 2582년 2개, 2583년 2개, 2584년 2개, 2585년 2개, 2586년 2개, 2587년 2개, 2588년 2개, 2589년 2개, 2590년 2개, 2591년 2개, 2592년 2개, 2593년 2개, 2594년 2개, 2595년 2개, 2596년 2개, 2597년 2개, 2598년 2개, 2599년 2개, 2600년 2개, 2601년 2개, 2602년 2개, 2603년 2개, 2604년 2개, 2605년 2개, 2606년 2개, 2607년 2개, 2608년 2개, 2609년 2개, 2610년 2개, 2611년 2개, 2612년 2개, 2613년 2개, 2614년 2개, 2615년 2개, 2616년 2개, 2617년 2개, 2618년 2개, 2619년 2개, 2620년 2개, 2621년 2개, 2622년 2개, 2623년 2개, 2624년 2개, 2625년 2개, 2626년 2개, 2627년 2개, 2628년 2개, 2629년 2개, 2630년 2개, 2631년 2개, 2632년 2개, 2633년 2개, 2634년 2개, 2635년 2개, 2636년 2개, 2637년 2개, 2638년 2개, 2639년 2개, 2640년 2개, 2641년 2개, 2642년 2개, 2643년 2개, 2644년 2개, 2645년 2개, 2646년 2개, 2647년 2개, 2648년 2개, 2649년 2개, 2650년 2개, 2651년 2개, 2652년 2개, 2653년 2개, 2654년 2개, 2655년 2개, 2656년 2개, 2657년 2개, 2658년 2개, 2659년 2개, 2660년 2개, 2661년 2개, 2662년 2개, 2663년 2개, 2664년 2개, 2665년 2개, 2666년 2개, 2667년 2개, 2668년 2개, 2669년 2개, 2670년 2개, 2671년 2개, 2672년 2개, 2673년 2개, 2674년 2개, 2675년 2개, 2676년 2개, 2677년 2개, 2678년 2개, 2679년 2개, 2680년 2개, 2681년 2개, 2682년 2개, 2683년 2개, 2684년 2개, 2685년 2개, 2686년 2개, 2687년 2개, 2688년 2개, 2689년 2개, 2690년 2개, 2691년 2개, 2692년 2개, 2693년 2개, 2694년 2개, 2695년 2개, 2696년 2개, 2697년 2개, 2698년 2개, 2699년 2개, 2700년 2개, 2701년 2개, 2702년 2개, 2703년 2개, 2704년 2개, 2705년 2개, 2706년 2개, 2707년 2개, 2708년 2개, 2709년 2개, 2710년 2개, 2711년 2개, 2712년 2개, 2713년 2개, 2714년 2개, 2715년 2개, 2716년 2개, 2717년 2개, 2718년 2개, 2719년 2개, 2720년 2개, 2721년 2개, 2722년 2개, 2723년 2개, 2724년 2개, 2725년 2개, 2726년 2개, 2727년 2개, 2728년 2개, 2729년 2개, 2730년 2개, 2731년 2개, 2732년 2개, 2733년 2개, 2734년 2개, 2735년 2개, 2736년 2개, 2737년 2개, 2738년 2개, 2739년 2개, 2740년 2개, 2741년 2개, 2742년 2개, 2743년 2개, 2744년 2개, 2745년 2개, 2746년 2개, 2747년 2개, 2748년 2개, 2749년 2개, 2750년 2개, 2751년 2개, 2752년 2개, 2753년 2개, 2754년 2개, 2755년 2개, 2756년 2개, 2757년 2개, 2758년 2개, 2759년 2개, 2760년 2개, 2761년 2개, 2762년 2개, 2763년 2개, 2764년 2개, 2765년 2개, 2766년 2개, 2767년 2개, 2768년 2개, 2769년 2개, 2770년 2개, 2771년 2개, 2772년 2개, 2773년 2개, 2774년 2개, 2775년 2개, 2776년 2개, 2777년 2개, 2778년 2개, 2779년 2개, 2780년 2개, 2781년 2개, 2782년 2개, 2783년 2개, 2784년 2개, 2785년 2개, 2786년 2개, 2787년 2개, 2788년 2개, 2789년 2개, 2790년 2개, 2791년 2개, 2792년 2개, 2793년 2개, 2794년 2개, 2795년 2개, 2796년 2개, 2797년 2개, 2798년 2개, 2799년 2개, 2800년 2개, 2801년 2개, 2802년 2개, 2803년 2개, 2804년 2개, 2805년 2개, 2806년 2개, 2807년 2개, 2808년 2개, 2809년 2개, 2810년 2개, 2811년 2개, 2812년 2개, 2813년 2개, 2814년 2개, 2815년 2개, 2816년 2개, 2817년 2개, 2818년 2개, 2819년 2개, 2820년 2개, 2821년 2개, 2822년 2개, 2823년 2개, 2824년 2개, 2825년 2개, 2826년 2개, 2827년 2개, 2828년 2개, 2829년 2개, 2830년 2개, 2831년 2개, 2832년 2개, 2833년 2개, 2834년 2개, 2835년 2개, 2836년 2개, 2837년 2개, 2838년 2개, 2839년 2개, 2840년 2개, 2841년 2개, 2842년 2개, 2843년 2개, 2844년 2개, 2845년 2개, 2846년 2개, 2847년 2개, 2848년 2개, 2849년 2개, 2850년 2개, 2851년 2개, 2852년 2개, 2853년 2개, 2854년 2개, 2855년 2개, 2856년 2개, 2857년 2개, 2858년 2개, 2859년 2개, 2860년 2개, 2861년 2개, 2862년 2개, 2863년 2개, 2864년 2개, 2865년 2개, 2866년 2개, 2867년 2개, 2868년 2개, 2869년 2개, 2870년 2개, 2871년 2개, 2872년 2개, 2873년 2개, 2874년 2개, 2875년 2개, 2876년 2개, 2877년 2개, 2878년 2개, 2879년 2개, 2880년 2개, 2881년 2개, 2882년 2개, 2883년 2개, 2884년 2개, 2885년 2개, 2886년 2개, 2887년 2개, 2888년 2개, 2889년 2개, 2890년 2개, 2891년 2개, 2892년 2개, 2893년 2개, 2894년 2개, 2895년 2개, 2896년 2개, 2897년 2개, 2898년 2개, 2899년 2개, 2900년 2개, 2901년 2개, 2902년 2개, 2903년 2개, 2904년 2개, 2905년 2개, 2906년 2개, 2907년 2개, 2908년 2개, 2909년 2개, 2910년 2개, 2911년 2개, 2912년 2개, 2913년 2개, 2914년 2개, 2915년 2개, 2916년 2개, 2917년 2개, 2918년 2개, 2919년 2개, 2920년 2개, 2921년 2개, 2922년 2개, 2923년 2개, 2924년 2개, 2925년 2개, 2926년 2개, 2927년 2개, 2928년 2개, 2929년 2개, 2930년 2개, 2931년 2개, 2932년 2개, 2933년 2개, 2934년 2개, 2935년 2개, 2936년 2개, 2937년 2개, 2938년 2개, 2939년 2개, 2940년 2개, 2941년 2개, 2942년 2개, 2943년 2개, 2944년 2개, 2945년 2개, 2946년 2개, 2947년 2개, 2948년 2개, 2949년 2개, 2950년 2개, 2951년 2개, 2952년 2개, 2953년 2개, 2954년 2개, 2955년 2개, 2956년 2개, 2957년 2개, 2958년 2개, 2959년 2개, 2960년 2개, 2961년 2개, 2962년 2개, 2963년 2개, 2964년 2개, 2965년 2개, 2966년 2개, 2967년 2개, 2968년 2개, 2969년 2개, 2970년 2개, 2971년 2개, 2972년 2개, 2973년 2개, 2974년 2개, 2975년 2개, 2976년 2개, 2977년 2개, 2978년 2개, 2979년 2개, 2980년 2개, 2981년 2개, 2982년 2개, 2983년 2개, 2984년 2개, 2985년 2개, 2986년 2개, 2987년 2개, 2988년 2개, 2989년 2개, 2990년 2개, 2991년 2개, 2992년 2개, 2993년 2개, 2994년 2개, 2995년 2개, 2996년 2개, 2997년 2개, 2998년 2개, 2999년 2개, 3000년 2개, 3001년 2개, 3002년 2개, 3003년 2개, 3004년 2개, 3005년 2개, 3006년 2개, 3007년 2개, 3008년 2개, 3009년 2개, 3010년 2개, 3011년 2개, 3012년 2개, 3013년 2개, 3014년 2개, 3015년 2개, 3016년 2개, 3017년 2개, 3018년 2개, 3019년 2개, 3020년 2개, 3021년 2개, 3022년 2개, 3023년 2개, 3024년 2개, 3025년 2개, 3026년 2개, 3027년 2개, 3028년 2개, 3029년 2개, 3030년 2개, 3031년 2개, 3032년 2개, 3033년 2개, 3034년 2개, 3035년 2개, 3036년 2개, 3037년 2개, 3038년 2개, 3039년 2개, 3040년 2개, 3041년 2개, 3042년 2개, 3043년 2개, 3044년 2개, 3045년 2개, 3046년 2개, 3047년 2개, 3048년 2개, 3049년 2개, 3050년 2개, 3051년 2개, 3052년 2개, 3053년 2개, 3054년 2개, 3055년 2개, 3056년 2개, 3057년 2개, 3058년 2개, 3059년 2개, 3060년 2개, 3061년 2개, 3062년 2개, 3063년 2개, 3064년 2개, 3065년 2개, 3066년 2개, 3067년 2개, 3068년 2개, 3069년 2개, 3070년 2개, 3071년 2개, 3072년 2개, 3073년 2개, 3074년 2개, 3075년 2개, 3076년 2개, 3077년 2개, 3078년 2개, 3079년 2개, 3080년 2개, 3081년 2개, 3082년 2개, 3083년 2개, 3084년 2개, 3085년 2개, 3086년 2개, 3087년 2개, 3088년 2개, 3089년 2개, 3090년 2개, 3091년 2개, 3092년 2개, 3093년 2개, 3094년 2개, 3095년 2개, 3096년 2개, 3097년 2개, 3098년 2개, 3099년 2개, 3100년 2개, 3101년 2개, 3102년 2개, 3103년 2개, 3104년 2개, 3105년 2개, 3106년 2개, 3107년 2개, 3108년 2개, 3109년 2개, 3110년 2개, 3111년 2개, 3112년 2개, 3113년 2개, 3114년 2개, 3115년 2개, 3116년 2개, 3117년 2개, 3118년 2개, 3119년 2개, 3120년 2개, 3121년 2개, 3122년 2개, 3123년 2개, 3124년 2개, 3125년 2개, 3126년 2개, 3127년 2개, 3128년 2개, 3129년 2개, 3130년 2개, 3131년 2개, 3132년 2개, 3133년 2개, 3134년 2개, 3135년 2개, 3136년 2개, 3137년 2개, 3138년 2개, 3139년 2개, 3140년 2개, 3141년 2개, 3142년 2개, 3143년 2개, 3144년 2개, 3145년 2개, 3146년 2개, 3147년 2개, 3148년 2개, 3149년 2개, 3150년 2개, 3151년 2개, 3152년 2개, 3153년 2개, 3154년 2개, 3155년 2개, 3156년 2개, 3157년 2개, 3158년 2개, 3159년 2개, 3160년 2개, 3161년 2개, 3162년 2개, 3163년 2개, 3164년 2개, 3165년 2개, 3166년 2개, 3167년 2개, 3168년 2개, 3169년 2개,

학교 현황

총 136만 5,553 인차, 불교 27만 8,000 인차, 불교 제외 108만 7,553 인차, 학생수 총 46,552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인차)			학생수			비율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유치원	402개	0	0	37,020	14	36,930	1,020	369	3,741	39%	0	40%
초등학교	46	0	0	1,046,546	52,546	1,000,000	1,000,000	1,000	1,000	100%	0	100%
중학교	22	0	0	402,175	0	402,175	0	0	0	0%	0	0%
고등학교	15	0	0	323,110	34	363,110	1,340	323	3,646	100%	0	100%
특수학교	1	0	0	24	0	24	0	0	0	0%	0	0%
합계	136	0	0	1,848,846	34	1,848,846	1,340	1,848	1,340	100%	0	100%

※ 03-04 학교수, 학생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세종시교육청 2018 주요업무 계획

03. 학교 현황

총 136만 5,553 인차, 불교 27만 8,000 인차, 불교 제외 108만 7,553 인차, 학생수 총 46,552명

단위 : 개교 수, 학생수(인차)

구분	학교수			학생수(인차)			학생수			비율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종교	사립	국
유치원	402개	0	0	37,020	14	36,930	1,020	369	3,741	39%	0	40%
초등학교	46	0	0	1,046,546	52,546	1,000,000	1,000,000	1,000	1,000	100%	0	100%
중학교	22	0	0	402,175	0	402,175	0	0	0	0%	0	0%
고등학교	15	0	0	323,110	34	363,110	1,340	323	3,646	100%	0	100%
특수학교	1	0	0	24	0	24	0	0	0	0%	0	0%
합계	136	0	0	1,848,846	34	1,848,846	1,340	1,848	1,340	100%	0	100%

* 유치원 개교 수 집계 기준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초·중·고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특수학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기타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세종시교육청 2024 주요업무 계획

이러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유무형의 질적 성장도 있습니다. 일관된 학교혁신 정책 유지를 통한 민주적학교 운영, 학생자치 그리고 학교 너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활동가의 성장,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의 협력적 기구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등의 성과도 있습니다.

3명 vs 230명 ... 세종시 초교 신입생 양극화 심화

이능희 기자 | 입력 2024.01.16 11:29 | 댓글 0

가 가

4981중 92%가 신도시 몰려 읍면 학교 6곳은 10명 미만 저출산에 전년비 9%나 줄어

세종시의 학령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차 줄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5478명)보다 9%(497명)가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비나 육아 문제 등의 문제로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895명을 정점으로 2020년 3500명으로 급감한 뒤 2021년 3538명으로 반등했으나 2022년 3295명, 2023년 2802명으로 내리막길을 탔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도 인구 절벽을 실감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과의 양극화 문제와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3학년(2024년 기준)이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2019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지역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추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8%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추세면 향후 10년 내 세종시 학생수는 현재의 반토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진 독특한 위상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로도 되지 않지만 행정수도로서 역할과 더불어 타시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는 세종이 자치 분권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가능의 선순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세종교육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요람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발선이 평등한 유아교육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생각이 자라는 초등학교 교육 ▲기본학력을 기르고 미래의 꿈을 탐구하는 중학교 교육 ▲세종형 학력을 키우고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 ▲사회적, 직업적 역량을 구체화하고 시민으로서 정주를 준비하는 대학교 교육 ▲시민의 교양 수준과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성인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종시가 태어나고 배우며 자라고 살아가는 정주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입 결과의 성공 여부가 인서울,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세종을 벗어나는 것이 성공이 아닌 세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세종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육이 되는,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교육 주권을

돌려주는 논의가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의 시민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생태계 선순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위한 독립적 재단으로 제도화하여 시민이 실효적,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 고등교육 발전 토대 마련해야 합니다. 유초중등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나오며

휴가를 보낸 지난 주 사람들이 봄비는 시장과 꽤 알려진 그래서 사람들이 봄비는 작은 책방에 같은 날 다녀왔습니다. 문득 시장에서 본 사람들과 서점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의 아이들의 표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수많은 회의와 시간을 보낸 결과입니다. 감동입니다.

좀 더 넓혀보면 궁극적으로 세종이 문화 예술이 넘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자라서, 세종에서 어른이 되어 다시 세종 아이를 키우며 풍요로운 문화 예술을 향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사람 사는 곳이 그런 곳 아닐까요?

6

현장방문 실시

□ 방문 개요

○ (일 시) 2024. 2. 2.(금) 10:30 ~ 12:00

○ (장 소)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

○ (참 석) 약 30명

- 대학유치특위 위원 10명(전원참석), 청년정책담당관 등 市 관계 공무원,
LH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및 직원, 감리단, 건설사 현장 소장 등

○ (내 용) 공동캠퍼스 부지조성 및 공사 추진 현황 확인·점검 등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20 ~10:30	10'	○ 의회 집결	
10:30 ~10:45	15'	○ 차량 이동(의회→4-2생 공캠부지, 쏘라티)	LH현장사무실 1층 안전교육장
10:45 ~11:30	45'	○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브리핑 - 브리핑 : LH세종본부 주택사업1부 (박현병 차장)	
		○ 위원 질의·답변	
11:30 ~12:00	30'	○ 공동캠퍼스 현장 확인	현장 안내 LH 세종본부
12:00 ~		○ 의회 복귀	

□ 주요 내용

- 한발대 입주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향후 차질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 시설공사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필요
-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촉구
- 미분양된 4개 잔여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당부
-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있는 하자 관리 감독 요청
-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비용 최소화 당부
-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당부

< 방문 사진 >



▲ 현장방문 단체 사진



▲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브리핑



▲ 공동캠퍼스 조성 현장 확인

□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6.(수) 14:00

○ (장 소) 의회 5층 회의실(504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 시청 관계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 (안 건)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청취의 건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의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05~14:55	50'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위 제4차 회의	
		-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14:55~15:00	5'	○ 산회 및 기념촬영 등	

□ 주요 내용

- 최근의 시대 흐름과 산·학·연 연계 등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대학 및 학과 유치 요청
- 당초 약속된 국비지원액이 축소되어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시 차원의 대학유치 전략 마련 요청
-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당부
- 분교가 많은 세종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시급한 공사 진행에 따른 하자 신속처리, A/S관리, 안전점검 등 철저히 관리 감독 요청
- 행복청의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시 의견 피력 노력 당부

< 회의 사진 >



I 대학정책 여건

-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원 감축 위주의 비생산적인 구조조정*에서 연구와 지식의 생산을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 강조
 - * (지역발전 위축) 정원 감축 타깃이 되었던 비수도권 소재 지방대 몰락 가속화 비판
- (지차제의 책임과 권한 강화)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의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중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벌대학 30, 지방고등교육협의체 신설 등
- (대학의 변화와 혁신 강조)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지방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 * (벚꽃엔딩)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적 표현 유행

II 지역현황 및 시사점

□ 지역현황 분석

- (대학현황) 시·도에서 가장 적은 3개교(고대·홍대·영산대)로 울산·제주(각 4개교)와 비슷한 규모이며, 대학별 특성화(주력) 분야 차별화*
 - * (고대) 미래모빌리티·정보보호 / (홍대) 디자인·광고·홍보 / (영산대) 방송·영상·미디어
- (인구현황) '17~22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8.92%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40만 진입을 앞두고 인구 증가 추세 둔화

대학수가 적고 특성화 분야가 명확하여 市 중요정책에 균형있는 참여가 가능하며, 금년 9월 중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과의 협력과제 도출도 중요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년층 인구의 유출 방지 노력 필요

- (산업구조)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이 약 82% 차지, 매출액 역시 서비스업 비중이 66.7%로 가장 높고, 제조업(26.1%) 건설업(4.4%) 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가 필요

- (고용현황) 고용률은 '22년 기준 63.7%(사·도 6위)며, 실업률(2.0%)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청년고용률(33.9%)은 가장 저조한 상황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우리 시 청년층 특성상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 정책 추진 필요

- (재정여건) 중앙정부를 포함한 타 지자체 모두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기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사업 도입 등 위축

※ 市 출범 이후 최초로 전년도 대비 '24년도 본예산 규모 감소(약 5%↓)

국비 확보(행복청 예산 포함) 및 기존의 중·장기 사업 연계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 등 효율적인 대학지원사업 재정 확보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산업구조 변화 선도) 지·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핵심기술 인재 양성·교육) 대학 주도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연구역량을 통해 세종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현안(대중교통 혁신, 정원 속의 도시 조성 등) 해결 노력

Ⅲ 市 대학정책 방향

1 대학정책 추진역량 강화

- (대학정책 조직 강화) 대학 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공동캠퍼스 개교(9월 예정)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 지속적인 업무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대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기능 보강 필요
- (지·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 의사결정 단계별(기관장 ↔ 간부 ↔ 실무자)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 필요
- (청년 정주여건 개선)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인재양성 - 취·창업 - 정주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 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 대학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시에 머물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거·문화·일자리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필요

2 RISE 계획 고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 '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도별 5개년('25~'29년) 계획 수립 중

- (RISE 센터 지정·운영) RISE 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 市 재정여건 및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참고, 5월까지 RISE 센터* 지정(교육부 승인)을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인 RISE 추진체계 구축 예정
- * (주요 기능) ①RISE 계획 수립 지원, ②RISE 계획 평가·환류 지원, ③관계기관 교육 계획 수립·운영, ④대학별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市 역점사업 연계) 지역 대학, 기업 등이 우리 시 중요정책과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중요

- RISE 성과목표, 추진과제,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역점사업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적의 결과물 도출 노력

* 사이버보안, 양자산업, 기회발전특구, 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스마트국가산단 등

- (기존 대학지원사업 연계)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되고, RISE 추진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인 만큼,

-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RISE 계획에 포함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된 대학(원)생의 수업과 연구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갖도록 배려 필요

* (RISE 편입 사업) 지역혁신 **RIS**(고려대·영산대), 산학협력 **LINC**(고려대·영산대), 대학특성화 **지방대 활성화**(고려대·영산대), 전문직업교육 **HiVE**(영산대), 평생교육 **LiFE**(참여대학 없음)

- (현장소통 강화) 실행력 있는 RISE 추진을 위해서는 교수진 등이 관내 기업을 방문, 수요응답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3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

글로컬 대학 30

- ▶ '26년까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 30곳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5년간 최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 (市 재정지원 규모 확정)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방안 제시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도 중요한 만큼,

- 관내 대학이 '25년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市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 예비지정 신청(~3.22) → 예비지정(~4월) → 본지정 신청(~6월) → 본지정(8월 초)

- 타 시·도 대비 재정규모가 작은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복청 사업 예산과, RISE 추진계획 연계 등의 전략 강구 필요

- (대학 간 상생방안 도출) '23년 선정 대학 10개교 중 사립대는 3개교(울산대·포항공대·한림대)에 불과하며, 모두 4년제 본교인 점을 감안하여,

- 분교(고려대), 전문대(영산대)의 약점을 극복하여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글로컬 신청 대학 간 상생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지역대학 균형발전 추진) '23년 최종 선정된 클로컬 대학 중 충청권 대학은 충북(충북대·교통대 공동) 지역만 최종 선정된 상황으로,
 - 지방대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안배의 중요성 건의 필요
 - ※ ('23년 선정 클로컬 대학 10개소) 강원 2, 부산, 경북 2, 충북, 전북, 경남, 전남, 울산

4 공동캠퍼스 개교 및 운영 지원

공동캠퍼스

- ▶(임대형) '24.9월 5개 대학(원)이 개교 예정으로, 총 992명이 수업을 받을 예정
 - ①서울대(행정정책대학원), ②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③충남대(의대·대학원), ④충북대(수의대·대학원), ⑤한밭대(AI/ICT 관련 대학·대학원)
- ▶(분양형) 총 10개 필지 중 6개 필지(3개 대학) 분양 완료, 4개 필지 추가 분양 추진 예정
 - ①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 '24.下 착공), ②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24.下 착공) ③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 26.上 착공)

-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국내 최초의 공동캠퍼스는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우리 시로 모여드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거점임
 - 금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임대형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면밀한 협력을 추진 중으로,
 -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
 - ※ (참고) 운영법인 직원 채용(~3월), 임대형 캠퍼스 준공(7월 예정), 기숙사 준공(12월 예정)
- (입주대학 불편사항 적극 해소) 개교 전후 집중 발생될 입주대학 불편사항과 지역주민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부서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동 캠퍼스 민원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재학생 지원정책 제공) 공동캠퍼스를 이용하는 대학(원)생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우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숙사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과 함께 우리 시 청년지원사업 홍보 추진

□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17.(수) 14:00 ~ 16:00(120분)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회의실
- (참 석) 대학유치특위, 행복청, 세종시청, LH,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 (내 용)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현황 및 계획, 협업체계 구축, 건의사항 논의 등
- (주 관) 대학캠퍼스유치 특별위원회

□ 회의 일정

시 간 계 획		내 용	비고
14:00 ~ 14: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인사말씀 (김영현 위원장)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사회자
14:10 ~ 15:50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현황 및 계획 - 공동캠퍼스 조성현황 및 계획 - 정주여건 지원방안 현황(바이오지원센터 구축 등) - 대학별 입주준비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 등 - 기타 질의·응답 	
15:50 ~ 16:0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 마무리 말씀 (김영현 위원장) - 기념 촬영 등 	

□ 참석 명단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비고
1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과장	황윤언	
2		도시성장촉진과 사무관	김희현	
3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4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5	LH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팀 팀장	최승영	
6		주택사업팀 차장	박현병	
7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상임이사	송기선	

□ 주요 내용

- 행복청, 시청, LH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필요
- 기숙사 건립, 임대주택(행복주택) 제공, 대중교통노선 연장, 통학버스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여건 마련 당부
- 공동캠퍼스 학생 도서관(학술문화지원센터) 장서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중단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으로 차질없는 2학기 개교(서울대, KDI, 한밭대, 충남대, 충북대) 요청
- 청년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당부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향후 공동캠퍼스 변동 사항 대비 필요

< 주요 사진 >



▲ 간담회 진행 사진



▲ 간담회 참석자 단체 사진

□ 회의 개요

- (일 시) 2024. 5. 9.(목) 11:00
- (장 소) 의회 5층 회의실(504호, 행복위 회의실)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10명*)

* 김영현^{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 김현미 · 김현옥 · 김호숙 · 박란희 · 안신일 · 유인호 · 이현정 · 임채성^{위원}

- (안 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	5'	○ 개의 및 인사말씀	위원장
11:05~11:15	10'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위 제5차 회의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15~11:20	5'	○ 산회 및 기념촬영 등	

□ 향후 일정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제89회 정례회 본회의 제출

2 운영 실적

□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구성현황)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10명) 선임

* 김영현^{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 김현미 · 김현옥 · 김효숙 · 박란희 · 안신일 · 유인호 · 이현정 · 임채성^{위원}

○ (활동기간) 2023. 2. 10. ~ 2024. 6. 30.

○ (활동현황) 회의 5회, 토론회 1회, 현장방문 1회, 간담회 1회,
5분발언 1회

□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

○ 공동캠퍼스(임대형 · 분양형) 조성 지원

- (위 치) 4-2생 대학용지(대학4-2 · 7~16) 등 약 60만 m²
- (정 원) 약 3천명(임대형 1천명, 분양형 2천명)
- (구 성) 임대형 캠퍼스(LH가 건물을 건립 · 출연하여 공익법인이 운영)
및 분양형 캠퍼스(LH가 부지를 조성 · 분양하여 입주기관이 교사시설 건립)
- (유 치) '23년 2월, 2차 입주대학으로 고려대(세종캠퍼스) 선정 · 승인

< 입주 예정 대학 >

구분	대학	편제 정원	'24년 입학정원	계열	연면적 (㎡)	개교 (예정)	비고
입대형	서울대	72	36	행정·정책대학원 (국가정책행정협동과정)	2,400	'24년	
	KDI	170	170	행정·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	2,400		
	충남대	400	400	의대·대학원	14,990		
	충북대	150	150	수의대·대학원	4,715		
	한밭대	200	160	AI/ICT 등 대학·대학원	5,000		
분양형	충남대	800	-	AI/ICT 등 대학·대학원	35,984 (부지면적)	'26년	착공예정 (24.8월)
	공주대	599	-	AI/ICT 등 대학·대학원	25,102 (부지면적)	'26년	
	고려대 (세종캠)	790	-	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 대학	32,370 (부지면적)	'29년	착공예정 (26.2월)

○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 및 예산 지원

-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23.11)을 지원하여 시설의 관리, 입주기관 유치·홍보, 입주계약 체결, 산학연 협력 세미나 개최 등 수행토록 추진
- '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운영비 예산 편성 지원

□ 세종시의 적극적인 의과대학 유치 활동 촉구

- 4-2생활권 대학부지에 지속적인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토록 촉구
- 대학 재정부담 완화, 산학연 협력 극대화, 시민사회 협의체 구성 등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이 담긴 의과대학 유치 전략 수립 요청

□ 세종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지원


- 지역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세종형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 대학, 기업 등이 세종시 중요정책과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협의·제안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주요 고등교육 정책 사항 협의·조정 및 대학지원체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행복청, 세종시청, LH,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등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 토론회, 간담회, 회의, 현장방문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여 유관기관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구 분	주 요 내 용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미래전략 산업분야(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등)와 연계한 대학유치·산학연 협력 추진 필요 - 대학문화거리를 별도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예술 활동 증진 필요
설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국립대학을 재배치하거나 충청권 국립대학교 체계를 구축 - 국공립 통폐합 본부 세종 유치, 국립대 및 시립대 신설 등 검토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제공, 청년 주거비(월세 등) 및 기숙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 - 누리동을 기점으로 주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대전시와 협의해 공동캠퍼스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 연장 검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법」 제63조의8에 의거해 유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급 추진 검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지역협력체계’(지자체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활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 학당 등을 검토하여 외국 학생·캠퍼스 유치 전략 마련 검토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 - 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 장서 확보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세종 지역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 요청



IV. 언론 보도자료

1. 세종시의회 보도자료

2. 주요 언론 보도 스크랩



보도요청: 2023년 3월 9일(목) 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육 안전 전문 위원 실	전문위원	선우명수	☎ (044) 300-7520
		장학사	김진형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최원석 부위원장 선임

- 3월 9일 제1차 회의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활동 계획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상병헌)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1차 회의를 3월 9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3년 4월 26일(수) 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문위원	선우명수	☎ (044) 300-7520
		장학사	김진형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시작 - 26일 제2차 회의 열고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및 추진현황·계획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회의, 현장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진행한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캠퍼스 입주가 목전에 있다.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복합 캠퍼스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성 효과가 나오도록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3년 9월 8일(금) 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장 학 사	선 우 명 수 김 진 형	☎ (044) 300-7520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 -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계획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는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충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포사진 >



		<div>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div> <div>보도자료</div> <div>  세종특별자치시의회 </div>	
보도요청: 2023년 11월 14일(화) 배포 이후			사진(○)
제 공	의 원	김 영 현	☎ (044) 300-7182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에 적극적인 의과대학 유치 활동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4년 1월 25일(목) 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선우명수	☎ (044) 300-7514
		주무관	이일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4년 2월 2일(금)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주 무 관	선 우 명 수 이 일 환	☎ (044) 300-7514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 4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 및 공사 추진 상황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4년 3월 6일(수)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문위원	선우명수	☎ (044) 300-7514
		주무관	이일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 6일 제4차 회의 열고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 배포사진 >





보도요청: 2024년 4월 18일(목)부터				사진(○)
제 공 부 서	교 육 안 전 전 문 위 원 실	전문위원	선우명수	☎ (044) 300-7514
		주무관	이일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 17일 간담회 열고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이하 ‘대학유치특위’)는 17일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 현황과 계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등 향후 우리 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우리 시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대학유치 전략으로 ▲행복청, 시청, LH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 여건 마련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강구 ▲청년 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중단 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 등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5월 초에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 전망이며, 제89회 정례회 기간 본회의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특위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 배포사진 >



주요 언론 보도 스크랩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 보도기사 】

○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관련

－ 활동시기: 2023. 2. 10.~2024. 6. 30.

[지방지 & 인터넷]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장 김영현의원 선일
	자치의정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최원석 ...
중앙매일	충청/강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최원석 ...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대전두데이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시작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시작
동양일보	종합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현황 청취
忠淸日報	지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3차 회의 진행
세종인뉴스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
투데이충남	정치	김영현 세종시의원, 의료체계 구축 시급
	자치의정	김영현 세종시의원,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
세종인뉴스	정치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 ...
투데이충남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토론회
	종합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중앙매일	충청/강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忠淸日報	충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
	자치의정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
충청매일	지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현장방문
중앙매일	충청/강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세종인뉴스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등 살펴
	자치의정	세종시의회,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 개교준비 살펴
중부매일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캠퍼스 점검
忠南日報	대전/충남	세종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유관기관 간담회
	자치의정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정착 지원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장 김영현의원 선임

변상섭 기자

부위원장은 최원석 의원... 9일 제1차 회의, 활동 계획 논의



세종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는 9일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와 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최원석 부위원장 선임

최형순 기자

- 3월 9일 제1차 회의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활동 계획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1차 회의를 3월 9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영현 위원장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최원석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최원석, 김영현,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3년 03월 10일 (금)

충청/강원

중앙매일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최원석 부위원장 선임

김정연 기자

9일 제1차 회의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활동 계획 논의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기념촬영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및 추진현황 등 청취

이종화 기자 netcore@hanmail.net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가 위원들과 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회의, 현장 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내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캠퍼스 입주가 목전에 있다.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복합 캠퍼스 조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성 효과가 나오도록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유인호·김현미·박란희·이현정·김현욱·김효숙·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대전투데이 2023년 04월 26일 (수)
정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시작

김태선

26일 제2차 회의 열고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및 추진현황?계획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 유치특위')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회의, 현장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진행한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캠퍼스 입주가 목전에 있다.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복합 캠퍼스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성 효과가 나오도록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김태선 ktshmk@hanmail.net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본격 활동 시작

변상섭 기자

26일 제2차 회의 열고 활동계획안 채택 및 추진현황?청취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장면. (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회의, 현장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날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시켜 대학유치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캠퍼스 입주가 목전에 있다. 세종시의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자족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복합 캠퍼스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성 효과가 나오도록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 위원장, 최원석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현황 청취

유환권

공동캠퍼스 조성,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용역 추진계획 등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세종시의회는 최근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와 질의·응답을 들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유환권 youyou9999@dynews.co.kr

2023년 09월 10일 (일)

忠清日報

지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3차 회의 진행

최성열 기자

시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보고 등 현황 청취



▲ 김영현 특위 위원장.

세종시의회가 9월 7일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세종시 대학 유치 정책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 3차 회의는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집행부는 그간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에 특위는 행복청에서 2024년 개교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이나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특히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 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csr48a@naver.com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

김근식 기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계획 청취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는 ▲공동 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김영현 세종시의원, 의료체계 구축 시급

이지웅 기자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의대 정원 동결



[세종=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현 세종시의원,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

최형순 기자

- 세종시 전문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 원정 진료로 내몰려
-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민주당)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제 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5분 발언하는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세종시는 전문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그사이 지방 의료체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기피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즉,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으로 정부의 발표 직후 전국의 지자체들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2040년까지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3가지 제언 사항은

첫째,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할 시 차원의 전담 조직부터 구성해야 하고, 이곳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 홍보활동 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이 담긴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캠퍼스 부지를 의과대학 설립 시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타당성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의과대학 유치를 연계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허브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뚜렷한 비전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킷기대회, 퍼포먼스 등 의과대학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우리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구심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 활동 적극 나설 것 촉구

김근식 기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에 적극적인 의과대학 유치 활동 촉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토론회

윤석근 기자

대학유치는 지자체 의지·역할 가장 중요
세종지역 고등교육 발전 방안 마련 제안



[세종=투데이충남]이지웅·윤석근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합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면서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최형순 기자

-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이순열)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 캠퍼스 유치특위')는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 토론회 개최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 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 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대학 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 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 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김정연 기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후 기념촬영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지난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 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했으며,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라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2024년 02월 04일 (일)

忠清日報

충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이능희 기자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세종시 집현동(4생활권) 내 공동캠퍼스 조성 현장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 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LH 세종특별본부·공동캠퍼스 운영법인·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능희기자

이능희 기자 nhlee777@hanmail.net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 점검

최형순 기자

- 4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 및 공사 추진 상황 점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 점검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 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2024년 02월 04일 (일)

충청매일

지역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현장방문

김오준 기자

4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 및 공사 추진 상황 점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 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은 소속 의원들의 기념 촬영 모습.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지난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 및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오준 기자 ojkim1037@ccdn.co.kr

2024년 03월 07일 (목)

충청/강원

중앙매일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김정연 기자

제4차 회의 열고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청취



제4차 회의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절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부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등 살피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피

6일 제4차 회의 열고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청취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세종시의회,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 개교 준비 살펴

최형순 기자

-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요구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주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현 특별위원장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 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캠퍼스 점검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17일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세종시의회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17일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 현황과 계획, 유관기관 협업 체계 점검 등 향후 우리 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우리 시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대학유치 전략으로 ▷행복청, 시청, LH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 여건 마련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강구 ▷청년 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중단 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 등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5월 초에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 전망이며, 제89회 정례회 기간 본회의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특위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서희 기자 zzvv2504@jbnews.com

2024년 04월 18일 (목)

忠南日報

대전/충남

세종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유관기관 간담회

김공배 기자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17일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와 계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등 향후 세종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학유치 전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대학유치 전략으로 ▲행복청, 시청, LH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여건 마련 ▲도서관 장서확보방안 강구 ▲청년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중단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 등을 주문했다.

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 대학유치 활동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공동캠퍼스 입주예정 대학들이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5월초 최종적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회의를 열며 89회 정례회 기간 본회의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특위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중이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김공배 기자 kkb1100@hanmail.net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정착 지원방안 모색

최형순 기자

- 17일 간담회 열고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이하 '대학유치특위')는 17일 대학 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 현황과 계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등 향후 우리 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우리 시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대학유치 전략으로 ▲행복청, 시청, LH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 여건 마련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강구 ▲청년 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중단 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 등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5월 초에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 전망이며, 제89회 정례회 기간 본회의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특위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